

## 글로벌 어닝서프라이즈...경기 회복 조심

### 미국 기업 순익 45%, 매출 11% 증가 국내 대기업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어닝서프라이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기소 약제로 출렁이던 글로벌 주식시장도 실적 호재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역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는 사실도 실적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기사 3번〉**

시장조사기관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의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어닝시즌

에 앞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7%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11% 늘어났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알코아가 테이프를 끊은 1분기 글로벌 어닝시즌은 다소 불안하게 시작했다. 알코아는 1분기 순손실이 2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보다 호전됐다고 밝혔지만 예상에 부합하는데 그쳤다. 이는 월가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텔이 분기기를 반전시켰다. 인텔의 1분기 순이익은 24억 4000만달러, 매출 103억달러를 기록

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텔은 대표적인 기업 수익성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출총이익이 2분기 64%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앞서 실적을 공개한 JP모건 역시 33억30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55%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분기 어닝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골드만삭스다. 골드만삭스는 5.59달러의 주당순익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 4.14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22일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

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1분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불안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전반적인 낙관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실색하지 않을 만큼 좋다. 포스코와 대한항공 등 업종 대표기업들의 순익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IT업종을 비롯해 금융과 철강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요기업 1분기 실적 (단위: 달러)

기업	주당순익(전년동기)	매출(전분기 대비 증가율)
알코아	0.2(순실0.61순실)	48억9천만(18%)
인텔	0.43(0.11)	103억(44%)
JP모건	0.74(0.40)	277억(5%)
골드만삭스	5.59(3.39)	127억8천만(13%)
구글	6.6(4.49)	50억6천만(23%)
MS	0.45(0.33)	145억(6%)

올해 내수 회복과 맞물린 실적 호조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이 맞다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 4·23 주택정책 뭘 담았나

## 건설사 숨통...미분양 해소 미흡

정부는 23일 신규주택 입주자의 기존주택 매수자에 대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4·23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후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꾸준히 하락하다가 올 3월부터 하락폭도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거래량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었다. 올 3월에는 과거 4년 동월평균보다 35%가 감소했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주택시장은 연간 37~38만가구 수준으로 2005년~2007년 평균 50만호의 74% 불과했다. 청약률과 입주률도 민간공급단지를 중심으로 한 청약률은 수도권에서 0.02대 1, 지방은 0.01대 1로 저조했고 준공 아파트 입주율도 58%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65%보다 더 낮은 입주율이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케 하고 미분양주택 4만 가구 매입 등을 골자로 한 4·23 대책을 긴급히 발표했다.

주택거래 부진과 미분양 증가로 인한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를 방

**미분양 대책**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 3조원 확대  
미분양 리츠 펀드 활성화 방안  
중공후 미분양 담보 회사채 유통화 지원  
나공후 중공후 미분양 공공임대용 매입  
3.18 지방 미분양 세입자 혜택 조속 시행

**중소건설사 단기 유통성 지원**  
공공 공사대금 담보 대출 브릿지론  
보통 1년 재시행(5월부터)

**주택거래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1조원내 용자 지원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기금 DTI 한도 초과 대출 보증 지원

치한다면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 이번 대책이 만들어낸 배경이다. 4·23대책 발표로 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친 미분양 위기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택 활성화 실효성에 의문점을 두고 있다. DTI 규제 완화 범위가 모든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입주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 매물에 금융위기 직후 65%보다 더 낮은 입주율이다.

특히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물량이 다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매물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 **〈2면에 계속〉**  
홍성일 기자 hsi@

## 월드컵 특수 격돌 시작됐다

### 대기업 벌써부터 시장 쟁탈전 돌입

브라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다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등 브라질에서 잇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예정되어 월드컵과 올림픽 특수를 노린 업체들도 현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TV 시장이 올해부터 특수를 맞이해 오는 2016년까지 지속되면서 TV의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스포츠 경기를 좋은 화면으로 보려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ED TV, 3D TV 등 고가의 평면TV 판매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역시 올해와 내년 중 냉장고·가스레인지·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섬유업체도 브라질 특수를 누리기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 중이다.

효성은 총 1억달러를 투자해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지역에 연산 1만 규모의 스펀덱스 공장을 내년 4월 완공, 가동을 시작할 계

획이다. 효성이 브라질을 공략하는 이유는 남미 최대 섬유시장으로 매력적인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코브라스코라는 현지 법인을 세워 브라질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일본 철강업체 및 종합상사와 손잡고 철강석 광산회사인 나미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STX그룹은 2007년 인수한 STX 유럽(구 아카야즈)의 현지 조선소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브라질에 진출한 이후 20척 이상의 해양작업지원선(PSV)과 해양시추지원선(AHTS) 등을 수주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가 대단히 활발하고 경제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에 성공하는 등 향후 10년 정도는 진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브라질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브라질 진출시 그동안의 해외투자경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경주 기자 ahnkj@



**만개한 남산의 벚꽃** 지난 23일 서울 시민들이 벚꽃이 만개한 남산 산책로를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다가온 봄을 만끽하고 있다. 기상청은 표준 관측목인 종로구 송월동 서울관측소의 벚나무에서 꽃 3송이 이상이 완전히 피었을 때를 서울 지역의 벚꽃 개화(開花) 날짜로 공식 기록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일 평년(1971~2000년 평균)에 비해서는 1일 정도 늦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0-2038호 (2010.02.18)

고객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시간들— 고객님들의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면 참 후회합니다. 어느덧 저도 노후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ING생명 파이낸셜 컨설턴트(FC)입니다.**

**ING생명 김병희**

## 성공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노후플랜 (무)플래티넘 즉시연금보험

- 기업 즉시연금 수령**  
기업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원하는 연금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연금형 선택 시, 기업 1년 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상속 플랜 설계**  
연금을 받으면서 사망 시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 재원으로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연금형 선택 시)
- 세제 혜택**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단, 확정연금형 제외)
- 당신처럼 살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ING은 당신입니다

## 글로벌 갑부는 이렇게 산다

### 30억 아이폰·23억 TV·2억원 골프 퍼터

때로 부자의 생활은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부자 중의 부자라는 글로벌 갑부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할까.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부자들이 구매하는 명품들은 개성·아름다움·희소성 또는 역사적 중요성으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이다.

최상위 부자라면 3백만달러(약 33억원)짜리 황금 아이폰을 거머쥔 것이 구매한다. 영국의 명품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티가 이명의 호주 사업가를 위해 아이폰 3GS에 22K의 황금을 입히고 53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부자들의 취미가 다양해서 선호하는 명품도 자동차 및 보트에서 보석류와 전자제품까지 실로 다양하다.

명품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것은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최근 구입한 초호화 요트로 가격이 무려 12억 달러에 달한다.

스위스의 명품 TV 제조업체인 프레스티지HD는 스텔라 맥카티가 디자인한 55인치 HD TV를 선보였다. 프레스티지HD 슈프링로드 에디션이라고 명명된 이 TV는 28kg에 달하는 18K 로즈골드와 1개



다이아몬드 72개로 장식했고 가격은 230만달러에 달한다. 'A.D.' 스텔라 맥카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 클럽으로 가격이 18만1000달러에 달한다. 이 퍼터에 찍힌 A.D.는 훗날 제임스2세가 된 영국의 요크공작을 시종들었던 18세기의 유명 골프클럽 장인인 앤드류 디킨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인도 최대기업인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저택이다. 안틸라라 불리는 이 집은 27층 빌딩으로 옥상에 헬기 착륙장이 있고 헬스클럽과 168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차고를 갖췄다.

이 집을 관리하는 인원만 600명에 달한다. 이 집의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하나 일부 보고서는 20억 달러로 추정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포스코·현대제철 제품값 인상

### 25%까지 인상...국제 철강 가격 상승 요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 23일 제품가격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포스코는 다음달 3일 계약 분부터 제품별로 9.8%에서 최대 2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열연과 선재는 톤당 17만원 인상을 85만원과 89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가전용 소재인 냉연코일(CR)과 아연도금강판(CG)은 톤당 18만원 인상에 96만5000원과 106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후판제품은 조선경기 불황을 감안, 인상폭을 최소화해 톤당 8만원을 인상한 90만원으로 결정했다.

포스코가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것은 최근 주요 원료 공급사들이 철광석 및 석탄 등 가격을 지난해 90~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등 원가측면에서 톤당 19~21만원의 철강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국제 철강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원료 구매계약이 과거 4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연간단위 계약에서 원료 공급사들의 요구하는 분기단위 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 판매가격도 분기별로 조정할 방침이다.

포스코가 이날 제품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현대제철도 열연 및 후판 가격을 각각 16만원과 8만원 인상을 기로 했고, 철근 및 형강은 각 4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철근과 H형강 등의 전기로 제품은 수입 스크랩 가격 기준 2월말 380달러에서 4월중 130달러가 상승한 490달러 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

### 주간 증시전망

## 피로감 누적 변동성 확대 실적 호재...글로벌약제 힘겨루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실적시즌이라는 호재와 그리스발 금융위기 및 미국의 금융규제라는 악재가 팽팽히 맞서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은 많은 악재들을 이겨내며 분주히 움직인 것 같은데 돌

아보면 멀리 나아가지 못한 듯한 느낌"이라며 "지수가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지나 호·악재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데다 업종간 등락이 크게 엇갈리면서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 전락의 측면에서는 공격적 대응보다는 방어적 대응이 바람직할 수 있고, 전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아닌 업종이나 종목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의 매매를 추종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신세계·현대백, 롯데그룹 '꼼짝마'

## 신세계-중사업 강화·신성장사업 육성...현대백-식품·유통·미디어 강화

신세계, 현대백이 M&A를 통해 덩치키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유통공룡 롯데그룹을 추격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내달 1일부터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의 한국기업연합관에 참여해 대형 합인점인 이마트를 중심으로 기업홍보에 나선다.

특히 개막식에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 위해 모처럼 중국 출장길에 나선다. 또 이 기간에 맞춰 중국지역 이마트 지점장들도 모두 상하이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중국사업이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현지 관계자들을 돌려보겠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에 있어 중국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98년 국내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상하이에 진출해 현재 2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자본을 투입해 점포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롯데와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비교된다. 롯데는 현재 백화점 1개와 합인점 80개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지 유통기업과의 합작 및 인수를 통한 것이었다. 롯데의 공격적인 사업 확대로 점포수에서는 크게 밀려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중국에서 이마트 점포 6~8개를 더 오픈할 계획이다. 역시 인수합병이 아닌 직접 짓는다. 그룹 관계자는 "중국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해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중국사업 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온라인사업을 선정하고 업계 1위로 키울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온라인몰 사업이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 비해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지난 3월 신세계I&C가 운영하던 신세계몰을 인수했다. 또 신세계는 기존 신세계몰이나 이마트몰과 별도로 온라인쇼핑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밖에도 올해 중으로 현대홈쇼핑과 HCN, 현대F&G 상장을 통해 총 5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조달금액은 모두 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M&A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신동빈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풍부한 자금력을 무기로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동안 신세계와 현대는 안정적인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영신 기자 phila@

# 은행세 논의에 금융기관 촉각

## 비예금성 부채 많아 부담...外銀 국내지점 치명타

금융 개혁안을 논의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은행세 부과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MF가 내놓은 은행세는 △금융안정분담금(FSC) △금융활동세(FAT) 등이다. 금융안정분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은행채, 해외차입금)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금융활동세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임직원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각 나라별로 입장이 다르다. G20에서는 금융안정분담금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안정분담금이 도입되면 비예금성 부채가 상당한 국내 금융기관으로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M&A를 통해 금융기관이 대형

화 되면 분담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자금을 주로 외화차입으로 조달하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그 피해가 국내기업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과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공조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제 기자 banky@

### 국제통화기금에 G20에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

금융안정분담금	금융활동세
- 금융기관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 - 각국 국내 총생산의 2~4%까지 조성 - 초기에는 같은 비율로 부과, 향후 위험한 금융기관 비율 상향	- 일정 수준 넘어서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너스에도 부과 가능 - 정부 재정제 편입

### 계약업계 리베이트 생벌죄 국회소위 통과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생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리베이트 생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에 처하고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제재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해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음,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수수료율, 마스터키 소유권, 단말기 비용... 카드사-이통사 모바일카드 갈등

모바일 카드 출시를 앞두고 신용카드사와 이통통신사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이통사는 망 사용료와 마스터키 소유권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는 우선 이통사가 요구하는 통신망 수수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하나카드와 2007년 모바일카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신한카드를 상대적으로 낮은 0.5%~0.1%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현대·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는 이통사로부터 0.1%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받고 있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모바일 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면 100원 이상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면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마스터키 소유권도 카드사와 이통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마스터키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의 SD키와 함께 휴대용 유심(USIM)칩에 내재돼 있다.

프로그램 성격상 단순히 입력 장치에 불과한 SD키보다 설

치·삭제가 가능한 마스터키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기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특히 마스터키의 소유 여부에 따라 모바일카드 시장에서의 '갑을' 관계가 바뀔 수 있어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물밑 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키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하나카드와 2007년 모바일카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신한카드를 상대적으로 낮은 0.5%~0.1%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한편 동종이들 각 가맹점에 설치하는 것의 비용의 주체도 카드사와 이통사 간 밀고 당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카드의 결제 단말기인 동종이들은 전국 400만 가맹점에 2만개에 불과한 것. 이를 두고 카드사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영세한 가맹점이나 벤처에게 떠넘기기도 부담이 되는 이통사가 설치비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 관계자는 "동종이 설치문제는 카드사, 이통사, 밴(Van)사, 가맹점이 비용을 조달해서 공동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



윤준환과 칸 IMF총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윤준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주택보증 자금 부담 가중될수도

1년에서 계속 4·23 대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분양 4만호 감축계획 역시 공공개입을 통한 미분양 해소로 죽어가는 시장에 링거를 꼽는 효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분양 해소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은 환매기간 동안 사업주체가 사장 열악, 환매거부 등으로 환매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에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츠·펀드를 통해 매입한 미분양아파트 역시 일정기간이 지난 후 건설사에게 되팔거나 일반 구매자들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민약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환매가 어렵거나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 임대마저 어려운 상

황이 돌아온다면 다시 미분양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리츠·펀드 투자상품 청산 시 LH가 매입확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LH 역시 매각·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4·23대책은 직접적인 미분양 해소 방안이라기보다는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홍성일 기자 hsi@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l@hanmail.net)

구제역

지역 경제

방역 체계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대표이사·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서성환 인쇄인 고광현 편집국장 김중현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태양빌딩 9F  
대표전화 : (02)784-1002 팩스 : (02)784-1003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1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99

주요부 (02)799-2615 신상부 (02)799-2620 금융부 (02)799-2625  
건설부 (02)799-2630 국제부 (02)799-2635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경제부 (02)799-2645 엔터테인먼트부 (02)799-2650 사보부 (02)799-2655

구독료 : 1부 1500원, 한달 6000원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작 '아델 블로흐 바우어 부인', (1907)

**제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릅니다**

**명작 펜잘큐**의 만남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펜잘큐

뛰니뛰니해도 두통약은 효과입니다. 개운함이 확실해야 좋은 두통약입니다. 펜잘큐는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입니다.

두통·치통·생리통에 **펜잘큐** 정

• 펜잘큐정 효능 효과: 두통, 치통, 생리통 등

• 펜잘큐정 효능 효과: 감기의 재증상(코막힘, 코막힘, 두통 등)의 완화

몸살은 물론 감기의 초기증상에도 좋은 마시는 펜잘큐도 있습니다.

내복약

광고심의회: 1001-0400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분기 글로벌 기업 실적 순풍 불었다 불붙은 호황...지역·업종 안가렸다

## 해외는...

어닝스트라이프는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호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호재라는 평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월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골드만삭스 역시 실적은 훌륭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에 5.59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 4.14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순이익 총액은 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18억1000만달러에서 91%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7억8000만달러로 예상치 110억5000만달러를 넘어섰다. 골드만삭스는 채권, 외환과 상품을 뜻하는 FICC 부문 매출이 전년 65억6000만달러에서 13% 증가한 73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실적 호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본격적으로 어닝시즌에 접어들면서 서프라이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2위 명차 업체인 독일 다임러가 흑자전환으로 추포를 쏟아내면서 푸조 시트로렌 등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임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1분기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임러의 이자 및 세전 순이익(EBIT)은 12억유로로 전년 동기의 14억유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억2000만유로로 집계됐다.

유럽 2위 자동차 메이커인 푸조는 21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푸조의 1분기 매출은 139억9000만유로(약 188억달러)로 전년 동기의 109억7000만유로에서 28%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30억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

## 중국 기업실적

기업명	순이익		매출	
	1분기	전분기	1분기	전분기
차이나하오란	0.34	0.22	3.87	2.86
푸순특수강	0.048	0.037	12.3	7.5
지리자동차	11.8	7.8	1410	429
차이나모바일	254.77	251.97	1090.87	1012.7
차날코	6.27	-18.89	290.59	139.43
화닝그룹	9.5282	5.63	243.4	139.43
에어차이나	21.7	9.81	140.7	112.4
사산 석탄전력	8.63	7.20	33.22	28.45
라이오자오	6.79	4.90	14.53	12.60
산둥 천연지업	2.38	0.08	39.17	24.96

이다.

미 주요은행이 1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은행권의 실적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21일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기록해 예상보다 좋았다.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사기혐의 골드만삭스 실적 '긱' 중국기업 90% 실적 호전 전망

영국 BP는 오는 27일, 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과 BG그룹은 29일,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은 30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중국의 고성장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최대 기업정보업체 윈드(WIND)는 상하이 및 선전증시에 상장된 200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전망보고서를 집계해 90.5%에 해당하는 181개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증권보가 올해 1분기 실적전망을 발표한 40개 상장사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7%에 해당하는 35개 업체가 실적 증가를 예상했다.

40개 기업의 1분기 순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한 총 15억2000만위안에 달한다.

중국 국영기업(SOEs)들의 순이익은 1분기 총 4088억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했다고 중국 재무부가 밝혔다. 매출액도 43.2% 증가한 6조5100억위안을 기록했다.

국내증시에도 상장된 중국의 재생 펄프 및 백반지 전문회사 차이나하오란은 1분기 매출액이 3억87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순이익도 3400만위안으로 158% 증가했다. 중국의 메이저 철강업체인 푸순특수강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15% 상승한 488만위안을 기록하며 중국내 수요가 증가세에 있음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은행들도 어닝스트라이프 행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은행권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8%, 도시 상업은행들은 27%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일 실적을 발표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은 지난해 전년보다 16.4% 증가한 1294억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순이익과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은행 지위를 굳혔다.

스웨덴 볼보를 인수하며 화제에 올랐던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34% 이상 증가한 11억8000만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매출도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410억에 달했다.

배수경, 배준호 기자 sue6870@

# '깜짝실적' 증시 고공행진 이어질까

기업 실적 줄줄이 사상최대 전망...원화강세가 복병

## 국내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양호한 실적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1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국내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15일 코스피지수가 2년여만에 174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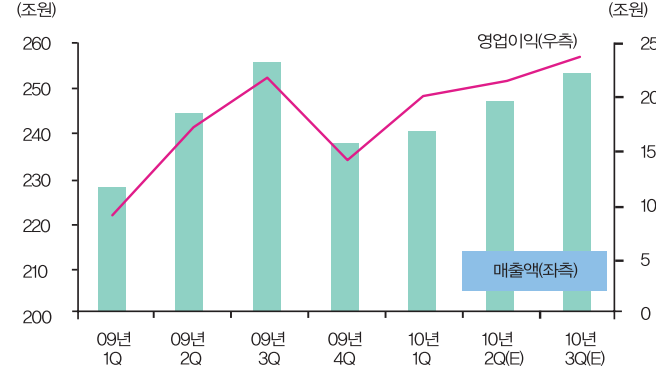
또한 1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을 앞서 발표한 POSCO와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소식을 전하는 등 1분기 실적 발표에 '사상최대'란 단어가 흔하게 불을 붙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원화 강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경기 판단멘탈이 양호한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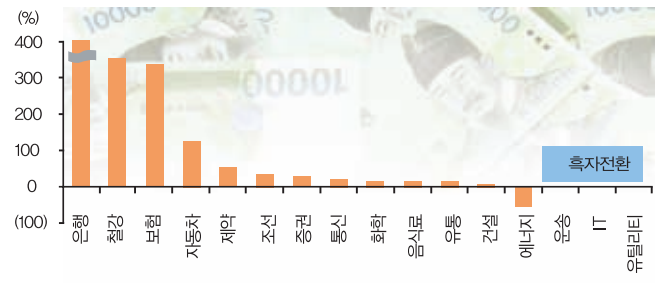
삼성증권에 따르면 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난 수준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전망치 자체도 지난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 조정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에 2분기와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역시 3월초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어 하반기에 대한 시장 기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IT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흑자전



참고: 국내 대표 500대 기업 기준  
자료: FnGuide



참고: 한국 대표 500개 기업 중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 기준, 신규상장, 기업분할 등은 제외  
자료: FnGuide

환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과 철강, 자동차 업종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소재,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의 분기 실적 상승세도 견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업종별 대표 종목들의 1

은 반도체 및 LCD 부분의 가격 강세에 기반하고 있다. DRAM 가격 강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NAND 역시 상승기로 들어서 2분기에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도 1분기 사상 최대의

## 삼성전자·포스코·LG전자 영업실적 호조 소비·투자 완전한 회복...내수기업도 호조

분기 잠정(예상)치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의 큰 형님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6%, 628.8% 증가한 34조원, 4조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경영실적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현대차의 경우 2분기에 사상 첫 투자 수익의 영업이익을 달성도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2일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4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8조4182억원으로

로 39.6% 늘었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들의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1조1272억원으로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01.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의 경우 쉐보레R, K7 등 신차효과와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로 1분기 영업이익이 30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8.6% 늘면서 1분기 기준 최대치를 보였다. 또한 순이익은 3989억원으로 309% 증가했고 매출액은 4조8607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날 삼성전기 역시 1분기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등 고부가 가치 사업 효과로 11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821% 급증하면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세웠던 종전 최대 매출액 1조5532억원보다 5% 늘어난 1조6236억원을 기록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는 소비와 투자 등 국내 민간소비와 완전한 회복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내수 기업들이 이를 상쇄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계절적 비수기에서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전환된 기업이익 모멘텀이 조만간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애플의 두번째 신화

## MS도 제쳤다

월가는 주당순이익 2.45달러, 매출 1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것은 현분기 전망은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애플은 6월 마감하는 회계 3분기에 2.28~2.39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하고 매출은 130억~13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 톰슨리더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회계 3분기 주당순이익을 2.7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 전망치는 129억7000만달러다.

투자자들이 애플의 실적 목표에 크게 실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크리스 휘트머어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현분기에 주요 3개 제품의 판매 사이클이 집중되면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의 신화를 이끄는 것은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완벽주의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이다.

잡스는 지난 1976년 컴퓨터업체 애플을 공동 창업한 이후 '애플'을 통해 PC 대중화를 이끈 IT업계의 신호를 울렸다.

애플 창업 10년만에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와 이별한 뒤 다시 10년뒤 애플의 CEO로 재기하면서 잡스의 드라마의 절정은 시작된다.

잡스의 복귀와 함께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애플은 1년만에 4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선다. iMac과 아이팟, 아이폰, 애플 태 등 잇따른 히트작들은 애플과 잡스를 IT산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민태성 기자 tsmn@



애플의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스마트폰 '아이폰'에 이은 태블릿 PC '아이패드'까지 대박행진을 지속하면서 애플의 질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주가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22일(현지시간) 260달러대를 돌파했다. 이는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2배가 넘게 올랐다. 시가총액은 241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395억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2위에 올랐다. 현재 미국증시 시가총액 1위는 30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액손모빌이다.

최근 애플은 호재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아이패드가 엄청난 관심 속에 출시된 첫날 30만대가 팔리는 히트를 친데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적, 애플은 20일 회계 2분기에 307만달러, 주당 3.3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79달러에 비해 90% 이상 순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는 875만대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 한혜진의 자동차보험은

# educar 에듀카 에요!

보험료 **저렴**하죠! 보상서비스 **감동**이죠!  
누구나 누리는 멤버십 **혜택**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에듀카로 바꿨어요.

좋은 고객·좋은 보험 **educar 에듀카**

**1566-3000**

---

### educar 에듀카 권의 멤버십 혜택!

- 입계차료 '교통안전공단' 과 제휴를 통한 자동차임대수수료 할인**  
· 전국 116개 '교통안전공단' 정비소 차량검사 비용 최대 5,200원 할인
- 블랙박스 장착차량 보험료 할인**  
· 국내 최초 블랙박스 장착차량 보험료 3% 할인

### Speed Mate 정비쿠폰북

- 전국 스포츠메이트 매장에서 엔진오일 교환시 2만원 할인
- 187지 무상점검, 자동차 정비보험 10% 할인
- 타이어 펌크 수리, 워셔액 보충, 차량연구 등 무료 이용

### 제휴카드로 혜택받기(외환, 신한, 롯데카드 등)

- 대중교통 이용시 평일 150원, 주말 250원 적립(외환카드로 에듀카보험료 결제시)
- 보험료 2~12개월 무이자 할부 / 보험료 3만원 또는 3%할인
- 기타 문화, 레저, 주유, 외식 등 각종 할인 혜택 제공

---

### 주요 호텔콘도(제휴카드 및 교직원 공제회 운영) 최대 60%할인

- 롯데호텔, 한화호텔, 리미티프라이즈호텔, 서울교육문화회관, 경주교육문화회관, 삼익교육문화회관, 지리산가족호텔 등 \*제휴카드별 적용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0분 긴급출동 보증제 실시

- 30분 초과시 GS주유상용권 1만원권 지급

### 상조서비스 '에다함' 할인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상조 서비스 할인

---

### 국내 최초 LPG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 긴급출동 비상금유 요청시, 거리에 상관없이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

\*7대 자체사정은 홈페이지 참조

사교여부 등에 따라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모든 보호대상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보험금)이 사교보험금이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금융기관별로 보험계약자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월 제 2010-0385호(2010.03.29)

■골드만삭스 사태 관전포인트 3가지

# ① 오바마 對 월가 대립 최후 승자는

- ② 금융 규제 확대 對 반발 확산
- ③ 리먼 'Repo 105' 분식회계 사태 관건

골드만삭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월스트리트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SEC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SEC의 주장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칼끝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의 기소를 단초로 한 미 정계의 속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매섭게 몰아부치고 있는 SEC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평이다.

SEC는 '시장을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2008년 발각된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 회장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사건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종이 호랑이'라는 빈축을 사운 SEC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해 지난해 2월 비장의 카드로 로버트 쿠키를 조사국장에 영입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쿠키는 이번 골드만삭스의 기소를 주도한 인물로 도이체방크 미국 법인의 법률지문을 지내 실무에도 능통한 만큼 SEC가 그에게 기대하는 점은 남다르다.

사피로 SEC 의장은 "내가 한 인사 중 쿠키가 발탁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깊다.

일각에서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지만 SEC는 한 해 동안 70만 건에 달하는 내부 고발 등을 바탕으로 골드만삭스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파브리스 투르 부사장과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7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상설조사소위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골드만삭스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



골드만삭스 사태로 오바마 행정부와 월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금융위기 관련 로이드 블랭크페인(왼쪽) 골드만삭스 CEO 등 월가 경영인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모습.

적 공세의 상징적 목표물이 됐다는 점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의 장과 티모시 가이너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금융규제에 관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들은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관련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너 장관은 "금융감독시스템이 대형 금융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형 금융사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조절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는 훌륭하게 구축된 규제 및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감독당국에 대형 금융사를 작은 회사들로 분리 및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며 "부실 금융사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개혁'에 대해 연설하며 금융권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죄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골드만삭스의 기소를 계기로 한 당국의 금융권 길들이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

골드만 기소를 결정하는 SEC 위원 투표에서 5명의 위원 가운데 공화당계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기능을 증시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의 맞대결이기도 하다.

'닥터돌'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골드만삭스를 겨냥한 것에는 정치적 동기가 부여돼 있다"며 "골드만삭스에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대중을 달래기 위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 당국과 월스트리트 사이 갈등의 불씨도 변수다. 바로 2008년 가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의 회계조작 문제다.

SEC는 현재 19개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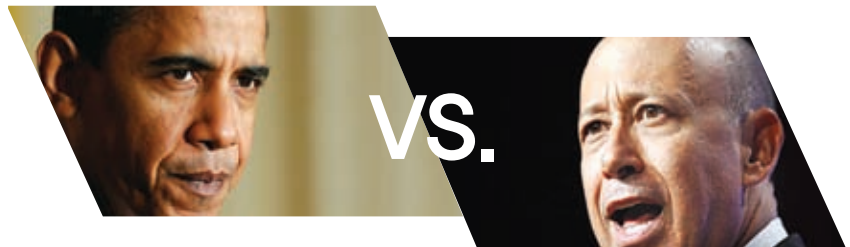
SEC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Repo 105'라고 알려진 분식회계 수법으로 이는 2008년 9월 리먼이 파산할 당시 500억달러의 부채를 축소, 은폐하는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피로 위원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시적으로 채무 수준을 낮춰 리스크를 은폐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주전 18개 대형은행이 지난 5개 분기 연속 채무를 정점 대비 평균 42% 줄였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파산한 베어스텝스 와 리먼브러더스 역시 채무 수준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하면서 파산에 이르러 금융위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 폰지부터 블랭크페인까지

폰지 게임(Ponzi game). 이 자물과 수익률의 차이로 부채가 확산되고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면서 결국 파산에 처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폰지 게임이라는 말은 192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빠질 무렵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기극에서 유래했다. 찰스 폰지라는 사기범은 국제쿠폰사업을 벌이면서 3개월에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은행이자의 수십배를 보장한다는 말에 4만명의 투자자들이 몰렸다. 폰지는 1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다.

폰지는 처음 모은 투자액을 자신이 챙겼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다음 투자자들의 납입금으로 지불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더 이상 자금이 모이지 않자 배당금은 바닥났다. 사업은 망했다. 폰지가 사기 혐의로 체포돼 감옥살이를 했음은 물론이다.

폰지 사기는 일종의 불법 피라미드라고 보면 된다. 간단한 사기극이지만 막상 그 앞에서 들어보면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폰지 사

기다.

90여년이 지나 월가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기가 재현된다. 전형적인 폰지게임 방식의 사기극이 월가의 유명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주인공은 미국 나스닥 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버나드 L. 매도프. 매도프는 1960년부터 버나드 L. 매도프 투자증권을 운영하면서 월가의 실력자로 군림했다.

그런 그가 2008년 말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매도프는 자신이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며 모든게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했다.

매도프의 사기로 투자자들이 날린 돈만 500억달러에 달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전세계는 다시 미국발 충격에 빠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기소한 것이다.

기소혐의는 증권사기.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속였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오바마 행정부와 월가의 한판 승부로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경제의 본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는 1982년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부문을 이끈 트레이딩 전문가다.

블랭크페인은 골드만삭스의 위험 투자를 독려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던 기업문화가 이익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같은 경영전략으로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인 투자자문과 증권인수 중개 등에 의존한 모간스탠리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오는 27일 증권사기 혐의와 관련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다. 기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번 사건으로 골드만삭스는 물론 블랭크페인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가의 탐욕과 투자자들의 군중심리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으로 벌어진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한다더니. 영웅은 고사하고 리더들의 몰락이 줄을 잇고 있다. 요지경인 세상이다.

(국제부장)tsmin@

세계상에서!  
폰지 Pass가 다 있네~

타기만해도 매월 최대 2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패스 외환 넘버엔 Epass

이코프랜들리 패스 Epass

1644-7744 / www.yescard.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ntrance</li> <li>Fatory</li> <li>Exit</li> <li>Education</li> <li>E-shopp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근길 교통비 100원 캐쉬백</li> <li>점심식사 5% 캐쉬백</li> <li>퇴근길 교통비 100원 캐쉬백</li> <li>학원/휘트니스 5% 캐쉬백</li> <li>온라인쇼핑몰 5% 캐쉬백</li> </ul>
---	--

## 도요타의 끝없는 추락 어디까지

무디스 등급 하향에 포브스 순위 급락



신용등급 하향과 순위 급락 등 도요타자동차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리콜 사태로 사과하는 도요타 아키오 사장.

리콜 사태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도요타자동차가 다시 굴욕에 휩싸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는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한편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선도기업' 순위에서는 지난해 3위에서 360위로 무려 357위나 밀려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속 페달 결함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8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데 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만4000대 리콜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물려 있는 도요타의 고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디스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와 자회사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Aa1'에서 'Aa2'로 한 단계 강등시키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의 우스이 다다시 애널리스트는 "도요타의 실적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데다 이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오는 2012년까지 저조한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등급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리콜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도요타가 유지해온 가격면에서의 경쟁우위성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불투명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향후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 신차 판매 대수의 완만한 회복과 품질문제가 추가로 발생해 내년 안에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등급이 하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쿄증시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지난 3월19일 이래 최저치인 주당 3600엔으로 떨어졌다.

한편 도요타는 포브스가 21일 발표한 '글로벌 2000대 선도기업(포브스 글로벌 2000)' 순위에서도 357위나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던 도요타의 순위는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대량 리콜 사태 이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360위로 추락한 것이다.

경쟁사인 혼다는 86위, 현대는 188위, BMW는 197위에 이름을 올렸다. 통신사 NTT(41위), 미쓰비시상사(78위)는 혼다와 함께 100위 안에 들었다.

지난 2008년 제너럴모터스(GM)를 누르고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에 등극한 도요타는 가속페달 결함으로 전세계에서 8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다. 그에 따른 판매 손실은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소송만 18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전복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SUV 3만4000대를 리콜키로 했다.

배준호 기자baejh94@

① 상장후 급등사례 찾기 힘들어...주가는 롤러코스터

# 우회상장사 '대박' 믿다가 '쪽박'

최근 우회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우회상장 후 수십 수백배까지 오르던 '쪽박'은 이제 옛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0% 이상 주가가 올랐던 7위권 내에서 6개 기업이 우회상장 기업이었다. 당시 인터리츠는 상반기 동안 681%의 상승률을 기록해 1위를 차지, 우회상장 신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우회상장 이슈가 선반영 되면서 주가 급등 후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상장폐지 심사 내지 상장폐지된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 합병 결정을 한 웹젠은 지난 15일 합병 결정후 19일 거래시 전일 대비 14.96%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20일 전일 대비 4.09% 하락 마감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3월19일을 전후해서 급등을 시작했으며 4월12일 합병 발표와 함께 14일 반짝 급

등후 급락했다. 14일 고점 2905원 대비 405원(-13.94%) 내린 2500원(20일 종가기준)을 기록한 것이다.

또 최근 전기차 기업 우회상장 핫이슈로 주목받던 CT&T는 각종 기업과 합병한다는 설이 난무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주가 급등락을 가져왔다. 결국 CMS와 합병 결정이 나기 전 반짝 급등을 시키고 발표 후 CMS의 주가는 2170원을 고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CT&T와 합병설이 오가던 지앤디윈텍과 액유리스는 반짝 급등 후 폭락했다.

골든오일, 섀켄, 제이티, 히스토스탸, 코리아본뱅크 등 현주(가) 20일 증가기준)가 합병발표 당시 주

가보다 부진하다. 몇몇 종목들은 발표 당시 급등한 사례도 있으나 결국 급락하거나 발표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던 기업들도 감사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매출30억원미달 등의 사유로 퇴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지난 2009년 6

월5일 상장 후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오르며 주목받던 네오세미테크(감사의견거절)가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다행히 네오세미테크는 외부감사인 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재감사를 하겠다고 결정해 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폴켄과 일공공일안경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모라리소스, 풀켄, 사인시스템, 알이네트웍스(전 비연알)도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름을 요구한 증권관계자는

▲우회상장기업 일정과 주가변동

피상장사	우회상장사	합병발표일	합병발표	20일기준 주가
동아회원권	코리아본뱅크	2009.11.02	1425원	1165원
유비트	히스토스탸	2009.12.17	4400원	3200원
제이티	세진시스템	2009.12.29	7050원	6210원
엠에이티	세진전자	2010.02.01	850원	860원
섀켄	제이티	2010.03.12	2470원	2305원
CMS	CT&T	2010.03.16	1295원	1895원
골든오일	동양시멘트	2010.04.01	3390원	3050원
인크루트	레드로버	2010.04.12	2530원	2500원
웹젠	NA제이티	2010.04.15	1만1700원	1만2900원

피상장사	우회상장사	합병발표일	상장폐지사유	비고
엔블루와이드	일공공일안경	2009.01.14	감사거절	상장폐지
씨엔시스템	알이네트웍스	2009.02.10	매출30억미달	상장폐지
모노솔라	네오세미테크	2009.06.15	감사거절	상장폐지
제노정보	사인시스템	2009.09.08	자본전액잠식	상장폐지
에니텍시스	폴켄	2009.11.19	감사거절	상장폐지
랩노믹스	모라리소스	2010.01.04	매출30억미달	상장폐지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 같은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란 쉽지 않다"며 "자칫하면 선취매로 들어온 자금 물량을 받아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회상장 기업들 중에 상장폐지 기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합병당시 피인수 상장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이 대부분이다"며 "단순히 테마나 이슈에 편승하지 말고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등을 살펴봐야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② 상장 절차 '식은 죽 먹기'

# 테마편승 주가 띄우기...감독원 감시 필요

우회상장은 기업공개(IPO)에 비해 상장 준비 기간도 짧고 형식 요건 심사만 하기 때문에 비상장자들이 선호하는 증시 진입 창구로 통한다.

이는 우회상장을 통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주주총회 부결과 채권자의 이의만 없다면 일사천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회상장 이슈는 대부분 발표 전·후에 피인수 상장 기업의 주가를 급등시킨다.

통상 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차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전기차, 태양광,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의 테마를 붙여서 이상 급등을 연출한다. 결국 단기매매의 장이 되기 쉽다.

최근 CMS는 우리나라 도심형전기차(저속전기차) 제조, 생산 기업인 CT&T가 우회상장하면서 전기차 테마로 급등한 경우다. 합병일은 지난 3월 12일이었다. 하지만 3월5일(종가 595원) 이후 시장에 알려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1895원(지난 20일 종가)을 기록중이다.

인크루트는 3D 입체 토탈솔

루션 기업인 레드로버와 지난 12일 흡수합병되면서 3D테마를 타고 지난 2009년 역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뚫고 2500원(지난 20일 종가)으로 마감했다.

물론 실제 기술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우량기업이 우회상장하는 사례들도 많지만 투자자들의 판단은 쉽지 않다.

물론 우회상장사가 무조건 테마에 편승한 부실주라고 말할 수 없다.

코스닥 기업에 우회상장으로 상장사가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합병이나 주식교환으로 우회상장하는 장외

기업이 ▲최근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최근연도 적정감사의견 ▲자기자본30억원 이상(벤처 15억원)▲최대주주 변경 6개월 이내 없을 것 ▲부도사유해소(6개월전) ▲소송 등 중요한 분쟁 없을 것 ▲우회상장전 타법인 합병시 결산 후 가능 ▲유무상증자제한(2년전 자본금 100% 이하, 단 초과분은 보호예수) ▲경상이익 있을 것(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없을 것 등 10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종민 기자 kjm@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의 상장요건

기준	합병	주식교환	주식소멸/현물출자	영업양수
계속사업이익 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본잠식 무*	적용	적용	적용	부채초과 무
자기자본(30억이상 벤처15억)	적용	적용	적용	-
ROE(10%이상,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이상, 벤처 10억)	적용	적용	적용	-
적정 감사의견(최근연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유·무상증자 제한(1년간)	적용	적용	-	-
최대주주변경제한(6월간)	적용	적용	-	-
소송 등 중요한 분쟁 무	적용	적용	적용	-
부도사유 해소(6월전)	적용	적용	적용	-
타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시 결산확정(3월미만시 차기)	적용	적용	적용	-

\* 재무요건은 최근사업연도(당월) 기준으로 하되 영업양수는 양수대상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함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분별 재무제표가 기재된 영업양도 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알함

③ 우회상장기업 투자시 짚어볼 점



## 상장전 발행 BW·CB 점검 필수 피인수 기업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우회상장 기업들이 상장폐지가 되거나 워크아웃 수순을 밟는 사례들이 최근에 찾아들면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y)나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등 우회 상장 전에 발행해 놓은 물량은 꼭 체크 해야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발행했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CMS는 최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절차를 진행중인 전기차 업체 CT&T의 이영기 대표가 합병 전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저가에 되사는 등 불투명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격은 현재 CMS 주가의 1/4 수준이다. 이런식으로 발행한 BW와 CB만 316억원 규모다. 향후 주식전환 및 인수시 대규모 차익을 해당 인수자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피해는 기준투자자나 향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반영해 CT&T

는 CMS와 합병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원은 투자자에게 걸쳐 이를 반려했으며 합병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융원은 CB BW의 전환 및 인수가격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관련 거래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상장하는 기업이나 피인수되는 상장기업의 전력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M&A관계자는 "문제기업이 투자했던 재무적투자자(FI)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이 회사에 관계했다면 우선적으로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문해지펀드인 피터백파트너스(이하 피터백)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상장폐지 결정이 난 풀켄은 피터백이 BW로 전체 상장 주식수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1월18일 기준 보통주를 포함해 54.0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부분은 감자를 해도 행사가격이 변치 않도록 사채 특약에 명시된 조항이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물량부담에 따라 곧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09년 에이모션 신주인수권을 통해 대규모 차익을 냈던 부분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주당 5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산 뒤 1500원에서

3000원을 전후해서 대규모 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냈다. 약300%~400%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당시 주주들은 피터백의 신주인수권 존재를 몰랐었다. 신주인수권증서도 지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통상 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시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본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피터백은 이를 악용한 것이다.

우회상장 종목은 아니지만 피터백이 지분을 보유중이던 제너비오믹스도 상장폐지됐으며 풀켄은 상장폐지실질심사 중이다. 코스닥상장사인 에너랜드, 테이크시스템, 카이시스, 태창파로스, 뉴로테크 등은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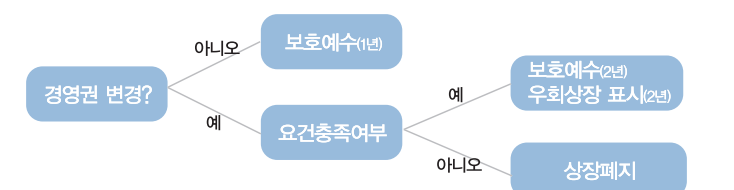
또 풋백옵션 공시 내용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M&A 합병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나오는 공시사항 세부내용을 면밀히 챙겨야 하는 사항이다.

옵션사채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존의 주주, 신규 주주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우회상장 사례는 아니지만 금호아시아나나 대우건설 인수건이 풋백옵션 피해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8년 대우건설 인수를 당시 재무적투자자(FI)와 지난해까지 연복리 9%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계약기간내 대우건설 주가가 기준가격(주당 3만1500원)을 하회해도 FI들의 보유주식을 그룹이 재매입한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재무 압박은 결국 금호그룹을 워크아웃으로 몰아 넣었다.

고종민 기자 kjm@

▲(경영권 변동 & 요건 미충족) 기업결합 종료후 상장폐지



준법감사인 사인확인번호 제 2010-228호  
2010. 4. 12 현재

# 비교해야 합니다!

차 사기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아래 물음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

	타 금융사	신한은행 S-MORE MyCar대출
적용금리	?	최저 연 6.21%
취급수수료	?	없음
차량담보	?	없음
할부기간	?	60개월까지
대상차종	?	모든 승용차/16인승 미만 모든 승합차

그리고 S-MORE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로 놀라운 혜택!

캐쉬백	?	대출액의 최대 1.5% (최대 50만원) (3천만원 대출시 45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포인트	?	최대 3만 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에 따라 대출액의 0.1%~0.5%이내)

어떤 차를 살지도 중요하지만  
할부로 할지, 대출을 받을지 꼭 비교해 봐야 한다. 생각보다 큰~차이

## 신한 S-MORE MyCar대출

[최저 연 6.21% ~ 최고 연 6.61%]

(4, 7월 금융채 6개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거래실적에 0.5%+이벤트우대 0.3% 할인금리 적용시)  
\*이벤트 우대금리 0.3%는 6월 30일까지 우대해 드립니다.

좋은 대출금리 조건에  
카드결제 혜택까지 하나로-  
지금 신한은행에 문의하세요

▶ 신한 S-MORE MyCar대출 상품문의 : 1577-8000, 1599-8000, 1544-8000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부대비용은 고객부담이며, 금융기법 신용불량 정보 등록고객 등 신한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의 대출여부 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지부신  
**THE Bank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BNP파리바 | 자산은행 | 신한(에이티)시스템 | 신한신용정보 | 신한프라임에쿼티 | 신한백리캐피탈 | 신한이타스

# 은행장 우즈베키스탄으로 'Go'

## ADB 총회 참석...'볼커룰' 은행계 논의 관심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5월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총 집결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ADB 총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길게는 1주일 간 현지에서 머물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인수·합병(M&A)이나 업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김경태 하나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과 운용로 기업은행장,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팔성 회장을 대신해 윤상구 전무가 출장길에 오른다. 민 회장은 현지 금융권 동향을 둘러볼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 중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법인(우즈KDB)을 두고 있

어 현지 사정에 밝다. 운용로 행장은 내달 4일까지 JP 모건과 웰스파고 등의 해외 금융기관들과 미팅을 갖고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IR을 갖기로 했다. 김경태 행장은 현지에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만나 관계 증진을 추진하는 한편 신용공여한도 연장 가능 여부도 타진해보기로 했다. 김동수 행장은 1주일 간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면서 현지은행과 수출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등 아시아 개발금융협력체(BCA) 대표들과 만찬을 하며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행장은 바르레이즈 등 국제금융기관들과도 잇따라 만나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듣는다. 이어 은행장들은 현지 기업들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근

ADB 총회 개최 전후로 은행장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개혁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은행계' 도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금융 안정 분담금'과 '금융 활동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G20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자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볼커룰'을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다수 은행장들은 은행계나 볼커룰 도입에 달갑지 않은 입장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일련의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국제시장의 규제 도입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국내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맡은 터라, 국제 기류를 '남의 일'로 치부하고 모른 척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볼커룰이 도입되면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국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G20 회원국은 미국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볼커룰이 도입되면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대형 은행 간 M&A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볼커룰은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은행은 3곳에 이른다.

# 론스타 "외환銀 매각 참 힘드네..."

## 외국계만 인수 의사 밝혀...대주주 적극심사 걸림돌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발송한 티저레터(투자자의향성)에 외국계 금융회사만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게 인수의사를 밝힌 곳은 HSBC, 스탠다드차타드, 맥쿼리, 골드만삭스, 모던스탠리 등 외국계 금융기관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기관만 인수전에 뛰어들자 외환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

환은행은 이들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국내 금융권 M&A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크다고 보고 때문이다. 외환은행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던 HSBC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바 있다. 외환은행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론스타는 국내은행들을 인수전에 끌어들이려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 M&A에 관여하려 했지만 인수인합을 밝힌 곳이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좁혀지면서 또 다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을 만났다"고 말했다. 매각기간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 등으로 인해 늦어질 경우 외환은행 M&A는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HSBC가) 공식적으로 MOU까지 체결한다면 대주주 적격 문제는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복수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인수의사를 밝히 현재로서는 단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민유성 회장 "연내 대출상품 출시"

## 본지와 인터뷰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올해안에 복합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10~11월에는 대출 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청담동 산은 청담PB센터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산은지주의 개인금융 브랜드 '산(山)'으로 고객자산을 산처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의 수신기반 확대 전략 중 M&A도 있지만 PB사업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M&A를 추진하고 PB사업을 통해 고객자산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우선 대우증권 지점과 결합한 복합금융센터인 청담PB센터와 5월 복합금융센터로 탄생할 한티PB센터를 통해 PB사업 전략을 시험해볼 계획이다.

PB센터에는 향후 보험사업과 카드사업도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험은 KDB생명으로 재탄생한 금호생명에 대해 대폭의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카드사업은 향후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해 개인고객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상품도 올해 연말 대출상품을 비롯해 산은만의 장점을 담은 복합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타 시중은행들이 고금리와 값싼 수수료로 복합금융상품을 만들었다면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사모투자펀드(PEF)와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민 회장은 "산은이 IB에 강한 행의 공개입찰에는 들어가지를 생각"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M&A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낸싱 사업과 PEF 등 각종 IB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산은의 수신자금 확보를 위해 시장의 예수금을 끌어오는 것 이외에도 20~30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통한 자금 모집과 산금채 발행을 활용한 금리차로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 등을 강구하고 있다. 민 회장은 한편 "이번 외환은행의 공개입찰에는 들어가지를 생각"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M&A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 카드사 드라마 출연경쟁

## 인지도 높이고 상품 홍보하고



하나스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카드가 아닌 휴대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결제습관을 이끌어내는 것이 모바일 카드 대중화의 관건"이라며 "드라마 주인공의 모바일 카드의 결제 모습을 노출시켜 사용방법을 고객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카드의 카드사를 소재로 한 KBS드라마 '부자의 탄생'에서 자사 상품을 적극 알리고 있다. 카드사 직원인 지현우는 경쟁사와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중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여학생 할인 응시료 지원,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안방극장을 활용, 적극적인 PPL(드라마 등에 자사 상품 등을 노출시켜 간접홍보를 하는 것)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새로 출범한 하나스카드는 MBC 수목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모바일카드를 등장시켰다. 주인공인 이민호가 지갑 없이 핸드폰 모바일카드로 결제한 것, 모바일카드 결제는 드라마에서 처음 선보인 장면이다.

김현정 기자 khj@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흥은중합사회복지관에서 신상훈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한 그룹 CEO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자털방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철)

# 동부화재 소비자평가제 도입

## 상품·서비스 체험 후 경영 반영

동부화재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 고객뿐만 아니라 가맹고객이 포함된 30~40대 기혼여성 25명을 소비자패널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발된 소비자패널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각종 상품 및 고객서비스에 대한 체험 및 평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 조사, 상품 개발 아이디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개별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한 달에 한번 간담회에 참석

하여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25명의 소비자패널은 6개월간 동안의 소비자평가간 활동을 마친 후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사는 이들이 제시한 전략 방향과 아이디어, 개선점을 회사경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동부화재는 선발된 소비자패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패널용 웹사이트 및 인터넷을 운영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며, 패널의 전문성 확보 및 윤리활동 준수를 위한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리 기자 healee81@

# 은행들 삼성생명 우리사주 대출 경쟁

## 이자수익만 수백억...금리혜택 전단지 살포

삼성생명 우리사주 청약의 앞두고 은행들이 삼성생명 임직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대출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있다. 각 전단지에는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등 은행

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3개월연동금리 최저 3.85%, 1년 고정금리 최저 4.12%(각각 추가할인 적용시)를 제공하며 급여이체, 해당은행 카드 이용 고객에 한해 금리를 추가 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직급별로 신용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우리사주 대출을 신청한 직원에게 이

벤트를 통해 기프트카드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3개월 연동금리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코리보(KORIBOR)금리를 적용해 1년 고정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대출 이자 수익만 수백억원대인데다 삼성이란 메리트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해리 기자 healee81@



당신의 체중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신발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스크린 골프·산책·레저를 하나로 - 잔디로 가벼운(輕量) 레저화 출시!

- 소재 :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사용(방수 발수 기능 탁월)
- 인솔 : 4겹의 관절보호 천연가죽 인솔(공방이, 발냄새 억제)
- 아웃솔 : VPS 공법의 아웃솔은 가볍고 안정감과 접지력이 우수함
- 한국인의 족형에 맞는 설계로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에도 편안함 보장.
- 발, 발수 기능이 탁월한 영국수입 피타드 가죽을 사용하여 쾌적함 보장.
- 일반화에 비해 천연가죽 신발은 수명이 길며 오래 신을수록 내발에 맞게 길들여지는 최상의 착화감 제공.
- 4겹의 천연가죽 안창은 신발속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발냄새 및 관절보호.

해외 골프투어 선호도 1위 - 잔디로 레저화  
Style No. : 1925-01(Black) 1925-02(Brown)



구입문의: 02)2632-2250 www.jandiro.com 의류대리점 모집: 02)6909-8826

■서울(02) 강남점 6909-8800 목동점 2608-7400 김포공항점 2662-9966 보문점 928-9900 ■경기(031) 덕이점 917-4545 김포장기점 997-2030 죽전점 276-1135 신봉점 393-3258 이천점 635-5235 평택안중점 264-1530 포천점 544-9772 ■인천(032) 부천상동점 610-4555 ■강원도(033) 원주점 763-9820 강릉점 653-2114 ■충남(041) 천안점 572-3798 ■대전(042) 대전점 484-9696 ■충북(043) 청주점 232-7519 청원점 260-5556 ■부산(051) 부산점 517-2525 ■경북(054) 칠곡점 973-0700 ■경남(055) 창원점 286-7887 김해점 320-9749 ■전남(061) 광주세정점 371-1150 목포하남점 287-0806 ■광주(062) 광주용봉점 511-0014 ■전북(063) 전주점 276-5000 군산신온점 443-5005 ■레저화 취급점: 구기점 02)395-1126 서대문점 02)351-3730 여의도점 02)780-7444 상계점 02)3392-3869 중구점 02)2002-5458 신당점 02)2232-3220 중남점 02)433-8686 계산점 032)556-1248

JANDIRO 2010 S/S Collection



LIG for Tomorrow

# 고객이 되어, 다양한 보험의 평생혜택을 하나에 담았습니다

## 무배당 LIG 웰빙보험

보험업계 최초 100세보장 통합보험 -

- 100세까지 나와 내 가족의 일생을 평생보장
-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하나로 통합보장



###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www.LIG.co.kr • 고객센터 : 1544-0114



# 증권사 HTS 보안 해킹에 무방비

## 거래내역 조회시 대부분 공인인증서 필요없어 전문가 “업계 심각성 인식 못 하는게 더 문제”

최근 휴대레이딩시스템(HTS) 보안 취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 주식투자 계정을 해킹한 증권사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증권사들과 금융당국은 보안 대책에 뒷집만 지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H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신상이나 계좌정보가 공개되거나 범죄에 악용당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한 증권사 투자상담사 이모씨는 주식투자 고수의 HTS에 몰래 접속한 후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소속 증권사 사무실에 사설 인터넷선을 통해 4년 동안 508차례에 걸쳐 개인투자자 정보 씨가 사용하는 B증권사 계정을 해

킹했다. 정부의 거래내역을 알아낸 이씨는 정씨가 투자한 47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씨는 B증권사의 HTS가 공인인증서 인증방식이 아닌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거래내역 조회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정씨의 계좌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주식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증권사는 B사를 포함해 상당수에 이른다.

경찰은 특정 컴퓨터에서 로그인하면 그 전에 로그인한 컴퓨터는 자동 로그아웃되는 이중 로그인 방지 기능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은 주식계좌 거래내역 조회시 공인인증서 첨부와 이중 로그인의 필요성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에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해킹보안 톨과 보안카드, 방화벽 등으로 개인 보안에 자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해킹보안 톨인 마이피어와 보안카드, 방화벽 설치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담이 쉽게 해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 개인 PC에 깔리는 HT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체가 취약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해 침입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통신 중에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

보안카드의 실효성도 문제다. 보안카드는 주로 30개의 보안비밀번호를 조합해 사용하는 카드다. 이

체 비밀번호,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와 함께 사용되는 보안장치다.

최초에는 30개 비밀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해킹사고 이후, 두 개의 비밀번호 앞뒤 두 자리씩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스캔해 그림파일을 저장해 둔 경우, 이 이미지가 탈취될 수 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사고사례에는 엑셀이나 그림파일로 저장 후 해킹을 당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금감원은 HTS 해킹 가능성에 대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해킹 대비 보완책과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한 보안관련 전문가는 “사고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쉬쉬하는 통에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의식과 대처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고종민 기자 lsh@

## 채권 발행 자금조달 전년동기비 22% 감소

1분기 채권 등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약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등록제도는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 등록부에 채권자의 권리내

역을 등록해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는 제도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권 등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6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2% 감소했다.

채권의 등록발행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3.7% 감소한 58조 9000억원이며 금액규모로는 회사채(금융회사채 포함), 특수채, 특수금융채, 국민채, 지방채의 순이다.

국민주택채권, 지방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5%, 97.7% 증가한 반면 회사채, 특수금융채, 특수채는 각각 29.5%, 25.0%, 20.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선제적 자금조달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돼 채권발행 수요가 감소했고 지난해 1분기에 2조 3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9P-CBO)의 경우 올 1분기 중에는 이뤄지지 않아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주간 IPO/장외주식시장

4월 넷째주 코스피지수는 주중반 미국기업들의 실적 호재로 1747선까지 올랐으나 주 후반 그리스 악재와 더불어 오바마대통령의 금융규제 강화 등 악재로 인해 1737.03pt로 한주를 마쳤다.

장외시장은 한주동안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생보시주에서는 미래에셋생명, 한주내내 상승하며 1만 2450원으로 장을 마쳤고, 금주 국내 수요예측을 실시한 삼성생명도 2.08% 상승하며 12만

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금호생명엔 연일계속되는 하락세에 5000원대를 벗어나 4725원으로 마감했다.

IT계열주들은 하락세가 우세했다.

삼성SDS(-1.34%)와 서울통신기술(-2.20%)은 각각 7만 7600원, 4만450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반면, 엘지씨엔에스는 홀로 0.21% 상승하며 2만3700원을 기록했다.

케이티스(-1.95%)와 케이티

씨에스(+2.52%)는 각각 4524원, 3250원으로 KT계열주들은 한주간 등락이 엇갈렸다.

범현대계열주에서는 현대홈쇼핑이 한주동안 11.35% 상승하며 5만1000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2.44%)과 현대카드(+0.64%)은 각각 4만 2000원, 1만58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반면, 현대로지엠(-1.35%)과 현대아산(-1.43%), 현대위아(-1.35%)는 하락했다.

이밖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0.28%)과 한국증권금융(+2.13%), 휠라코리아(+0.74%), 메디슨(+2.14%), 스포츠포토(+1.96%), 팍스넷(+1.37%) 등 장외 종목들은 한주간 상승 마감했다.

기업공개(IPO) 관련주에서는 공모일정을 발표한 모바일리더가 30.26% 급등하며 2만 4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다.

승인주인 솔라시아(8750원)와 실리퀀스(7만3000원)는 각각 6.06%, 9.77% 상승했다.

기간 : 2010.4.19~2010.4.23

### 장외시세표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종목	2010.4.19			2010.4.23			주간등락폭	등락율	계좌이체
	말자	사자	기준가	말자	사자	기준가			
금호생명	5100	4900	5000	4850	4600	4725	-275	-5.50%	가능
미래에셋생명	11800	11500	11650	12600	12300	12450	800	6.87%	가능
삼성증권	20500	19700	20100	21500	20500	21000	900	4.48%	가능
삼성SDS	79000	78300	78650	78000	77200	77600	-1050	-1.34%	가능
서울통신기술C	47000	44000	45500	45500	43500	44500	-1000	-2.20%	가능
엘지씨엔에스C	24300	23000	23650	23900	23500	23700	50	0.21%	가능
케이티스C	4630	4600	4615	4600	4450	4525	-90	-1.95%	가능
케이티씨에스C	3200	3140	3170	3300	3200	3250	80	2.52%	가능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500	12000	12750	13500	12500	13000	250	1.96%	가능
포스코건설	91500	89000	90250	91500	88500	90000	-250	-0.28%	가능
한국디지털위성방송E	18300	17400	17850	18100	17700	17900	50	0.28%	가능
현대로지엠	7800	7000	7400	7600	7000	7300	-100	-1.35%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41500	40500	41000	43000	41000	42000	1000	2.44%	가능
현대아산	12000	9000	10500	11700	9000	10350	-150	-1.43%	가능
현대위아	40000	34000	37000	39000	34000	36500	-500	-1.35%	가능
현대카드	16200	15200	15700	16100	15500	15800	100	0.64%	가능
현대캐피탈	43000	38000	40500	43000	38000	40500	0	0.00%	가능
휠라코리아	35500	32000	33750	34500	33500	34000	250	0.74%	가능
KT파워텔	12500	12000	12250	12500	11500	12000	-250	-2.04%	가능
SK건설	45000	41000	43000	44000	41000	42500	-500	-1.16%	가능
덕신하우징C	5500	5000	5250	4700	4000	4350	-900	-17.14%	심사청구
모바일리더C	20000	18000	19000	25500	24000	24750	5750	30.26%	공모예정
삼보정밀전자C	8000	7300	7650	8000	7300	7650	0	0.00%	심사청구
삼성생명C	122000	118000	120000	123000	122000	122500	2500	2.08%	공모예정
솔라시아C	9000	7500	8250	10000	7500	8750	500	6.06%	승인
실리퀀스C	68000	65000	66500	75000	71000	73000	6500	9.77%	승인
우양에이치씨C	13000	9500	11250	13000	9500	11250	0	0.00%	심사청구
유비벨록스C	18000	13000	15500	18000	13000	15500	0	0.00%	승인
이글루시큐리티C	13000	11000	12000	12900	11000	11950	-50	-0.42%	심사청구
이연제약C	15000	14500	14750	15000	13500	14250	-500	-3.39%	승인
인피니트헬스케어C	5600	5100	5350	6300	5600	5950	600	11.21%	공모예정
크루셀텍C	24500	23200	23850	23500	22800	23150	-700	-2.94%	심사청구
투비스소프트C	12000	8000	10000	12000	8200	10100	100	1.00%	공모예정
환영철강공업	34000	28000	31000	34000	28000	31000	0	0.00%	공모예정

##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걱정 여전

### 네오세미테크 주주, 3개월 거래 정지후 하락 우려



네오세미테크 주주들은 지난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역할을 호소하기 위해 김봉수 이사장과 면담을 시도했다. 이날 경호원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경찰까지 출동했다.

네오세미테크가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일단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간동안 주식의 매매가 정지되고 재감사에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상폐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주들은 '감사의 견 거절'을 제시한 외부 감사

인인 대주회계법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수 네오세미테크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회계법인이 잘못된 선임견을 품고 불성실하게 감사해 '의견거절'을 냈다"며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제3회 회계법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때까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버티고 있

다. 하지만 감사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게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명을 요구한 모 회계법인 회계사는 "외부 감사인 지정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교체 주기에 따른다"며 "사안 발생시 임의로 감사인을 교체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재감사를 하겠다"며 "점검과 실사 등 재감사를 진행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보내고 개선기간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가총액 4083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28위 기업 네오세미테크가 증시에서 퇴출될 경우 주주 1인당 최대 피해액은 2224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오세미테크의 한 소액주주는 "우여곡절 끝에 상장폐지는 막았지만 개선기간도 남아 있고 거래가 된다고 해도 주가 하락이 볼 뻔했 게 감사하다"며 "그래도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다행"이라고 애써 불안감을 감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 '코스피200' 신규 포함될 종목 어디

### 차익거래 세금 부과 기관투자가 관심

오는 4월30일 코스피200 종목 산정을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5월 신규 산정을 앞두고 코스피200 특별 편입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변경에서 신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역시 시가총액 뿐 아니라 업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코스피200 정규 변경은 4월30일 증가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는 5월 하순에 최종 종목을 발표하고 6월 퀘더러플워치메이인 6월10일 이후 편입될 예정이다.

특히 펀드환매에 시달리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코스피200 종목 변경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차익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조금이나마 초과이익을 내기 위해 한발 앞서 편입 종목을 골라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년 코스피200 정기 변경시 신규로 포함되는 종목들의 경우 코스피200 종목 산정 발표가 나기 이전부터 주가가 우호적으로 움직이며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좋았다는 점에서 더욱 매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200에 신규 편입됐던 대한항공은 최종 편

입 한달 동안 25% 가까이 상승했고, 삼성카드도 기준이 되는 4월 말부터 6월12일까지 50%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200 종목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LG이노텍, 글로벌비스와 하이트맥 주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200 종목 정기 변경과 관련해 가장 먼저 보고서를 냈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비스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비스의 경우 최근 자동차 업황 호조로 인해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어 편입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글로벌비스, LG이노텍, 하이트맥 주 등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영희 기자 chaosbut@



KB투자증권, 신용거래 무이자 이벤트 KB투자증권이 지난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용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10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양증권 ELW 25종 상장

동양증권증권은 23일 총 901억원 규모의 주권워런트증권 '동양ELW 0180~0204호' 25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발행해 거래가 시작되는 동양ELW는 LG디스플레이, KT, 삼성전자, POSCO, LG화학, SK에너지, LG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기초자산으로 하는 워런트 22개 종목과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워런트 3개 종목이고, 유동성공급자(LP)는 동양증권증권이다.

## '무늬만' 구제역 관련주 급등 '투자주의'

### 관련 매출은 소독제뿐...전체 대비 미미한 수준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까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차상위 수준인 '경계(Orange)'를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구제역 관련주로 분류되는 동물용 백신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기업들은 구제역 관련 제품의 매출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구제역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인 중앙백신은 지난 9일 인천 강화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부터 22일

까지 13일 동안 약 52%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사료제품 및 환경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일바이오도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5%가량 주가가 상승했으며 사료첨가제를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는 아글 벵 역시 같은 기간동안 34%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구제역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실질적 구제역 관련 제품의 매출이 총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구제역 백신을 제조하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으며 구제역 관련 제품이라고 해봐도 소독제뿐이 없기 때문이다. A 백신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관련 백신은 우리나라 어느

업체도 생산하고 있지 않고 구제역 관련 제품은 소독제뿐이 없다"며 "소독제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마다 한번씩 판매가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B 백신업체 한 관계자는 "구제역 파문이 일어날 때 마다 꼭 우리회사가 구제역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며 "실질적으로는 판매되는 제품이 소독제 1개이다 보니 구제역이 끝난 후로는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 중증시 약세...펀드가입 적기

## 부동산 억제·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중증기 '공정'

중국 증시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이며 중국 펀드 역시 올해 들어 수익률이 저조하다.

중국 증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진흥 조처에 대한 우려로 지난 19일 4.7%의 급락세를 보이는데 이

어 상해종합지수는 3000선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대신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투트랙'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내수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꺾이지 않는다면 점증적인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고 위안화 절상은 수입가격 하락을 유발시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남 것으로 기대된다.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펀드의 경우 최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대중과 반대로 펀드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자산의 30% 정도는 채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양은의 펀드 애널리스트는 "중국 펀드 설정액이 컸기 때문에 유출 규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머징 국가 중 가장 성장 전망이 좋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양정원 상무는 "중국은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진축 우려 등이 주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가장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향후 성장성 또한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별 펀드 수익률

(단위: 억원%)

대유형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	1주	1개월	6개월	연초이후
글로벌	298	30,393.77	23,758.64	1.11	3.48	7.15	5.50
글로벌이머징	111	16,007.75	13,632.56	0.65	3.34	4.77	3.96
EMEA	13	3,014.68	2,620.33	1.93	4.45	10.10	12.62
브릭스	73	103,436.98	90,573.50	-0.53	2.26	0.74	0.82
신용아시아	78	7,426.01	6,533.33	0.77	4.01	9.65	7.98
인디아	26	27,799.05	22,093.39	-1.54	2.63	5.08	1.79
중국(홍콩)	160	180,370.87	145,047.54	-3.01	1.62	3.59	-1.39
중국본토	61	10,431.56	10,609.63	-0.79	2.17	2.35	-6.57
대만	9	154.25	128.71	0.95	4.52	4.63	-2.61
인도	56	14,683.57	14,301.17	-0.83	2.56	7.23	4.71
아시아퍼시픽	45	7,656.26	6,683.98	-0.21	2.87	5.70	3.28
아시아퍼시픽(Excl.)	80	32,373.42	27,225.35	-0.65	0.96	3.02	1.48
일본	76	7,718.12	3,908.86	0.27	4.59	7.98	7.50
유럽	57	5,460.20	3,976.08	2.00	2.73	4.45	3.76
신용유럽	42	10,980.45	7,583.65	3.61	6.86	11.58	14.30
러시아	33	12,526.73	6,404.64	4.28	7.19	17.46	18.22
북미	34	1,277.93	1,312.54	2.14	3.90	8.53	6.60
중남미	57	13,445.53	11,628.28	0.32	3.01	3.91	2.61
브라질	41	4,473.33	4,492.95	-0.13	0.45	-0.77	-2.29
중동아프리카	23	2,405.12	2,191.68	-0.42	3.98	0.06	7.00

(자료: FNI가이드 4월19일 기준)

## 조남호 한진중 회장 주식 매입

### 이달 들어 자사주 44억원까지 사들여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이 4월 들어 자사주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남호 회장은 지난 3월 18일 자사주 2만5650주를 주당 2만 3788원에 장내매수한 이후 4월 들어서만 13일부터 2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장내매수에 나섰다.

조 회장이 지난 3월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것은 2006년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분할된 한진중공업 지분 735만주를 2007년에 공개매수 청약으로 모두 처분한 이후 3년여만에 처음이다.

조 회장의 자사주 매입 행보는 3월 이후 잠시 뜸하다 4월 13일(6000주, 매입단가 2만4571원)을 시작으로 14일(3만6400주, 2만 5788원)과 15일(4만7000주, 2만 5958원), 16일(5만주, 2만7013원), 19일(1만1940주, 2만8100원), 20일(1만5000주, 2만8058원)까지 6

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이로인해 조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3월 최초 매수 지분 0.05% 이후 0.40%(19만1990주)까지 늘었다.

그가 4월에 매수한 자사주 금액은 44억1300여만원에 달하며 매입 단가는 주당 2만6531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조 회장의 이따른 자사주 매입이 향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상상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와 향후 업황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반등의 시그널로 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연초 밸리 기대감에 2만4000원대 주가를 회복한 이후 조선 업황의 악화와 노조파업에 따른 가동률 하락, 로이즌트 수주취소 및 CMA CGM 선박 증도급 납입 지연에 따른 재판대 등의 악재로 2월 들어서는 장중 2만원대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퇴직연금 주식투자비중 낮다

### 2.7%에 불과...미국과 비교해 22분의 1수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금액 추정'에 따르면 2010년 2월 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15조1176억원 중 실질적인 주식투자금액은 약 4040

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2.7%에 불과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 적립금의 88.7%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운용되고 있으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있어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더욱 낮다고 밝혔다.

최영희기자 chaosbul@

## '묻지마' 상한가 종목 활개

### 수일만에 100% 가까운 상승 종목도

최근 주식시장에 이따른 이유도 없이 몇일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묻지마 급등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차익실현을 노리고 급등주에 투자했지만 이내 급락세를 연출하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급락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자동차 변속기전문 생산업체인 대동기어는 16일까지 14거래일동안

100%의 상승률을 보이며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주가급등 사유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대동기어는 "주가 급등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대동기어의 주가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태림포장공업도 마찬가지로 몇일째 상승세를 기록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주가급등 사유 없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재현 기자 nls@

## 에탁결제원은 금융선진화의 '축'

### 전자투표·증권박물관·나눔재단 설립등 사회적 책임 다해



올해로 36년을 맞는 한국에탁결제원(사장 이수화·사진)은 수진조에 이르는 국민 자산을 관리하는 주식에탁·결제 기관으로서 금융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투표 시행으로 편리성·효율성·투명성을 실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증권박물관을 설립해 증권실물 보존과 역사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KSD나눔재단을 설립해 18년간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 노하우에 힘을 실고 있다.

신식 에탁·결제 기관으로서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에탁원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 8월 초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시스템 접속만으로

도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 전자투표 제도는 유용하다. 주주서한 발송, 주총장 섭외와 인건비 등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용이하다.

전자투표제는 새로운 보팅(Shadow Voting)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과거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보팅 제도가 주주총회 운영을 예측시키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의경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영상태가 투명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주총 홍보를 기피하고 새로운 보팅을 통해 적당히 주총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탁원은 지난 2004년 5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증권실물의 보존과 역사연구를 위해 국내 유일의 증권박물관을 설립했다.

세계 최초의 주권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식 등 세계 각국의 역사적인 증권들이 전시돼 있어 증권 역사의 흐름

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증권 개념 이해를 위한 다양한 코너들도 마련돼 있다.

에탁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증권박물관에는 경제전문 학교를 연상케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이런 다양한 경험 및 이공계 관련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국에탁결제원(에탁원) 사회공헌기구 'KSD나눔재단'이 곧 1주년을 맞는다.

에탁원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중요한 경영 철학 중 하나로 삼고 지난해 4월 27일 KSD나눔재단을 설립했다.

KSD나눔재단은 역사는 짧지만 1992년부터 에탁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체 '폴꽃회'의 발전된 형태며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다.

에탁원 기본재산 100억원, 지난해 사업비 15억원 출연으로 설립된 KSD나눔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해외 저개발국 금융인프라 지원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최근 에탁·결제 기관으로서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에탁원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 8월 초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시스템 접속만으로

도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 전자투표 제도는 유용하다. 주주서한 발송, 주총장 섭외와 인건비 등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용이하다.

전자투표제는 새로운 보팅(Shadow Voting)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과거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보팅 제도가 주주총회 운영을 예측시키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의경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영상태가 투명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주총 홍보를 기피하고 새로운 보팅을 통해 적당히 주총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탁원은 지난 2004년 5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증권실물의 보존과 역사연구를 위해 국내 유일의 증권박물관을 설립했다.

세계 최초의 주권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식 등 세계 각국의 역사적인 증권들이 전시돼 있어 증권 역사의 흐름

## 대생주가 삼성생명 효과 받을까

### 외인 매수세 유입...탄력받아 꾸준한 상승세

삼성생명 상장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한생명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의 해외 IR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삼성생명 해외 IR 결과 공모가격이 10만원 이상으로 당초 기대치보다 높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공모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대한생명의 현재 주가 수준이 싸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주간사로 등록된 국내 및 외국인 기관은 공모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대체주로서 대한생명이 주목을 받으며 수급도 개선되

고 있다.

대한생명은 지난 3월 17일 공모 가격이 8200원보다 높은 8700원으로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하지만 상장 첫날 9130원 최고가를 기록한 후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장 후 강력한 매도를 보이던 기관이 최근 수매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은 대한생명 상장 첫날 무려 1170만주를 순매도했다. 주간단위로 살펴보면 상장 첫 번째 주 기관은 1546만주를 팔아치웠다.

그 다음주엔 404만주를 순매도했고, 4월 첫째주엔 129만주 순매

도를 보였으나 매도 규모는 크게 줄었고, 결국 지난주(4월12일~4월16일) 27만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지난 주에도 지난 21일까지 33만주를 사들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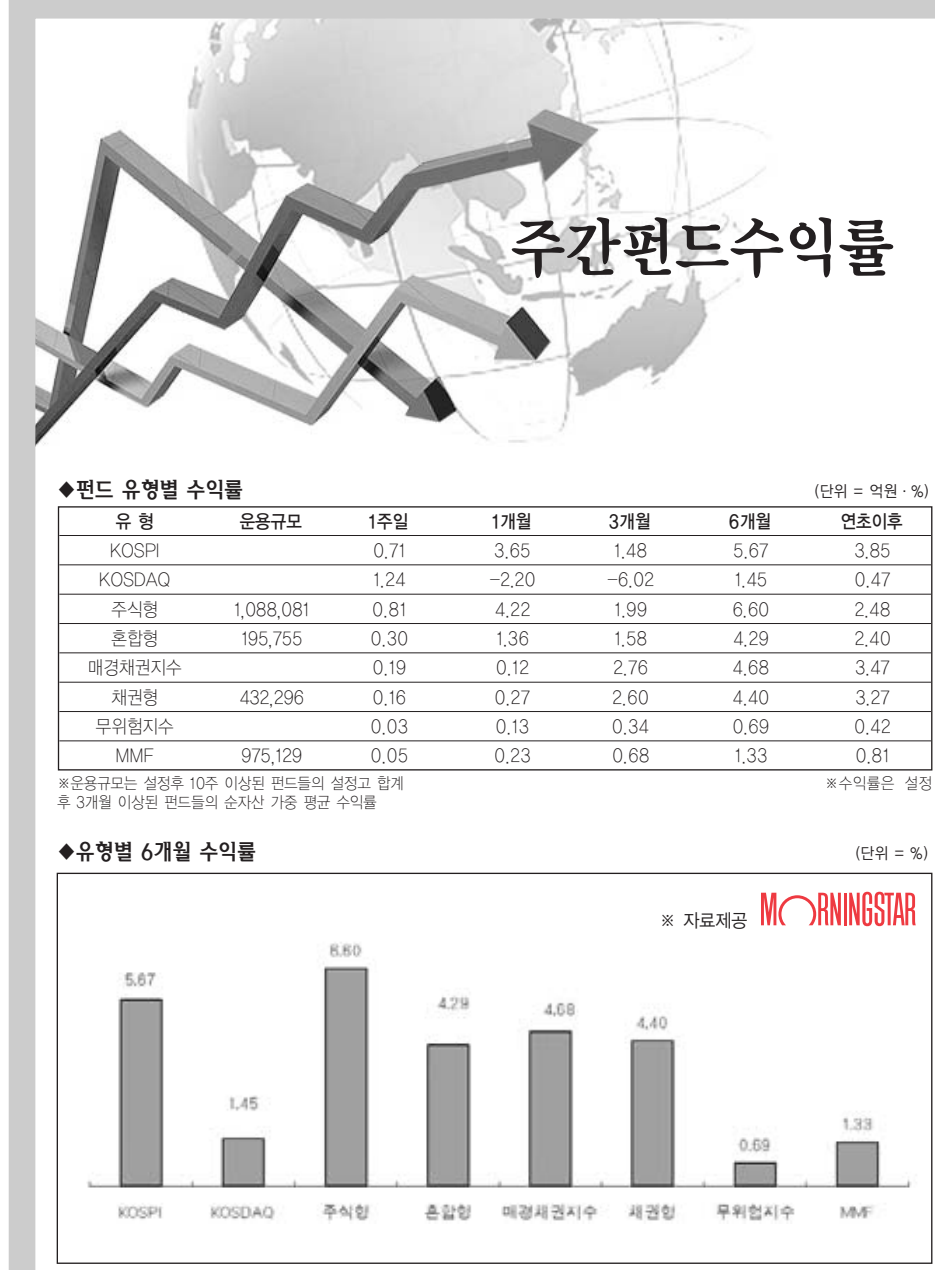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상장 첫날 567만주 매도에 이어 둘째날 12만주 매도 공세를 펼쳤던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 꾸준하고 강력한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대한생명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삼성생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신승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생명의 주가 움직임은 삼성생명 효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삼성생명 상장시 대한생명도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ں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희기자 chaosbul@



### ◆펀드 유형별 수익률 -주식형

펀드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배타기준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미래에셋증권	2008-07-07	508.98	2.50	1.57	16.40	50.48	8.34	0.38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8-09-17	121.130	5.31	4.59	12.42	50.44	9.89	0.8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9-02-17	1,377.88	4.29	9.28	11.03	45.92	0.99	0.8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1-16	453.151	4.12	3.12	12.13	48.22	0.86	0.86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미래에셋증권	2008-05-02	129.211	4.90	7.69	15.14	46.34	0.84	0.84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10-13	177.081	4.02	4.49	8.02	45.03	0.63	0.63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8-21	745.326	3.90	3.71	10.29	44.37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1-03-03	134.117	4.59	0.86	10.32	44.47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8-21	745.326	3.90	3.71	10.29	44.37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1-12-21	166.091	3.17	3.09	10.29	43.37	0.98	0.98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3-12-31	344.099	3.64	1.05	12.11	44.06	0.78	0.78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10-13	177.081	3.92	2.27	8.20	44.02	0.94	0.94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7-10-17	629.052	5.19	4.02	9.17	43.93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4-07-20	169.053	5.17	4.02	9.26	43.92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8-21	745.326	3.90	3.71	10.29	43.67	1.01	1.01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4-07-06	1,805.033	5.17	4.06	9.26	43.59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8-18	764.143	5.37	4.03	12.60	43.48	0.83	0.83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3-12-31	166.091	3.17	3.09	10.29	43.37	0.98	0.98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4-11-01	22,940.052	5.14	3.83	8.81	43.30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1999-06-23	626.105	3.71	1.42	12.11	43.30	0.76	0.7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5-10-17	4,719.056	5.16	3.93	8.96	43.21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0-01-04	906.118	4.58	1.81	7.56	43.14	0.96	0.9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4-07-20	1,377.051	5.17	3.85	8.98	42.96	0.99	0.9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6-08-18	764.143	5.37	4.03	12.60	42.96	0.89	0.89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0-01-04	906.118	4.58	1.81	7.56	42.77	0.96	0.9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8-03-12	171.010	4.67	1.53	16.22	42.27	0.96	0.9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8-03-12	171.010	4.67	1.53	16.22	42.27	0.96	0.9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3-01-03	392.191	3.79	1.44	7.56	42.17	0.90	0.90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1999-06-23	626.105	3.64	1.21	11.64	42.13	0.76	0.76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5-10-17	4,719.056	5.16	3.93	8.96	42.10	0.92	0.92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3-01-03	392.191	3.79	1.44	7.56	42.10	0.92	0.92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3-12-31	2,313.089	5.08	2.88	9.78	42.03	0.98	0.98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8-06-27	1,508.060	3.87	1.99	9.77	41.95	0.92	0.92
한국투자증권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한국투자증권	2005-10-17	4,719.056	5.16	3.93	8.96	41.85		

#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독주 예고

## 1분기 국내사 최대 실적 불구 대만기업 적자...치킨게임 승리 굳히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벌어진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후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1분기 실적발표를 한 하이닉스는 예상치를 뛰어 넘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1분기지만 연결기준 2조821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

영업이익은 7990억원, 순이익은 82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8%로 전분기 25%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하이닉스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D램의 판매 수량이 증가했고, D램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도 놀랍다. 지난 6일 이 회사는 올 1분기 매출액 34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 수준의 실적 전망치를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부분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는 반도체로만 2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 2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양사의 이 같은 실적은 미국 반

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1분기 영업이익이 4603억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대만 반도체업체는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대만의 D램업체인 난야와 이노테라는 지난 1분기에 각각 12억 대만 달러씩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적자전환이다. 두 회사의 매출도 전 분기 대비 각각 15%와 1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각각 -9%, -11%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기란 말이 무색한 수치다.

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D램의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40나노급 기술을 개발하고 7월부터 40나노급 2Gb 제품을 양산에 들어갔다. 올 2월 말에는 40나노급 4Gb 제품도 출시했다. 30나노급 D램도 1월 개발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현재 메인 메모리 제품 중 60%에 도달한 DDR3 제품의 비중을 올해 말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40나노급 제품의 성공적인 공정 전환과 30나노급 제품의 연내 개발을 완료해 후발업체들과의 기술경쟁력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만 난야와 이노테라의 경우는 50나노 미세공정 기술 비

중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공정의 32Gb MLC(Multi-Level Cell) 낸드플래시를 이 달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하이닉스도 지난 2월에 20나노급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차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유한 D램 반도체 기술력이 대만 업체들보다 1년6개월가량 앞서고 일본 엘피다나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1년 이상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도 좋다. 시장전문가들은 연내 D램 수급 상황이 제한적인 공급과 PC 수요 증가로 타이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출시했고 올해 초 인텔이 CPU 신제품을 내놓는 등 PC 교체 수요가 늘고있다는 점도 호재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도 낸드 플래시 시장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애플 아이폰 4세대의 판매량을 600만대만 잡아도 플래시 수요가 5%가까이 신규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재계총수 내달 상하이엑스포 총집결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전경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중국 상하이엑스포가 국내 재계인사들의 집합장소가 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상하이 엑스포내 한국기업연합관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 12곳의 총수나 대표 대부분이 개막에 맞춰 다음 주중 출국할 예정

이다.

한국 기업연합관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전자, 신세계이마트,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효성, LG, STX등 12개 국내 대표기업이 설치비용을 분담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조직위

## 12개 기업 연합 개관

원회 명예위원장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상수 한전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강덕수 STX 회장도 상하이엑스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기업연합관 조성을 주도한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한국 국가관을 담당할 코트라 조환의 사장도 개막식에 맞춰 중국을 찾을 예정이다.

황익신 기자 philla@

# 해운업계 잇단 호재에 웃음짓다

## 물량 증가 기대에 잇단 정부·은행 지원

고진감래(苦盡甘來). 국내 해운업계가 잇단 호재에 웃음 짓고 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이 어려움을 겪던 해운사들이 2010년 들어 경기회복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물동량 증가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롬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반입과 반출이 각각 40%·3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항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늘어나 지난 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0%, 15%씩 증가했다.

철광석 가격과 원료탄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호재다. 지난 3월 브라질의 자원대기업인 발레와 일본 철강사들은 올해 2분기 철광석 공급 가격을 약 90% 인상된 110달러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도 이와 비슷한 조건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수요 회복 기대에 따라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호주

의 자원개발회사인 FMG사에 따르면 호주 주요 3개 항구의 올해 1~2월 철광석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 4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항공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상운송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이 해운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항공운송이 전체 운송량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지만 잠재수요나 해운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해운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국내 해운 및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해운거래·운임선물·선급·선박 수리 등을 취급하는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 4월 13일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용역 주요 내용·추진 방향 및 일정 등을 보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산시의 의뢰를 받아 이르면 연말까지 세부 설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해운산업에 눈을 다시 돌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2조원대의 KDB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선사들의 선박을 매입하고 재융선하는 방식을 통해 해운업계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산은 선박펀드를 지원받은 1호 선박 로즈마리호를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캄코나 산은의 선박펀드 등이 해운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다소 높은 이자율이 부담되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홍수 기자 shs@

IOPE

NEW

앰플로 잡티를, 에센스로 피부톤을 밝힌다

## 아이오페 화이트젠 앰플 에센스

어느 순간부터 다양하게 생기는 화이트닝 고민들 - 이제 고기능의 투영에센스가 칙칙한 피부톤을 밝히고 고농축 미백 앰플(스팟 화이트 캡슐™)이 뿌리 깊은 잡티를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관리 받은 듯 깨끗하게 빛나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 고농축 미백 앰플(스팟 화이트 캡슐™)은 앰플 성분인 멜라닌 분자를 그대로 고농축하여 잡티의 3가지 원인인 멜라닌, 모세혈관 확장, 피부 수축 잔여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 동영양에 많은 노란기를 케어하고 붉은기를 잡아주며 멜라닌의 검은기까지 빼주어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세부적으로 대응, 균일하게 개선합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 이리따움에서 화이트젠 앰플 에센스를 만나세요 • 고객센터 080-023-5454 www.iope.co.kr

## GM대우 대출금 2500억 상환

미국 GM이 정부의 구제금융 81억달러를 조기 상환한데 이어 한국의 GM대우도 산업은행 대출금 2500억원을 같은날 상환했다.

GM대우는 지난 22일 올해 1분기 판매 호조로 인해 유동성에 여유가 생겨 만기 도래한 대출금 2500억원을 무리없이 상환했다고 밝혔다. GM대우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한국의 GM대우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은 물론 개발과 생산까지 도맡아 전세계에 판매중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수출명 시보레 스파크)와 라세티 프리미어(수출명 시보레 크루즈)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GM대우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차량중 가장 훌륭한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고 고객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며 "영업거점에서는 판매를 늘리고 회사는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kim@



리서치 인 모션(RIM)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서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블랙베리 9700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는 볼드 9700은 성능과 기능면에서 이전 볼드 9000 모델보다 대폭 강화된 제품이다. 3세대(G) HSDPA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내장 GPS, 와이파이(Wi-Fi), 3.2메가 픽셀 카메라와 2.44인치 빛 감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사진 = 임영무 기자)

# 삼성중 5억달러 규모 유조선 9척 수주

## 올 말주 아프리카막스급 전량수주...3척 추가 예상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조선 2척을 1억3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그리스의 한 해운선사로부터 15만8000t급 유조선 2척을 1억3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11척의 유조선을 수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또 유럽 최대의 석유업체 로열더치셀이

지난해 발주한 LNG-FPSO(액화천연가스-부유식원유저장하역설비) 선체에 대한 설계 및 물량을 최근 결정하면서 이날 1차 수주 금액을 11억8000만달러로 확정, 공시했다.

로열더치셀 LNG-FPSO의 천연가스 생산 및 액화기능을 갖춘 상부구조(Top side)는 오는 12월 이후에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 총 21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액(14억달러)을 넘어섰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80달러를 웃돌면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운사들이 유조선 확보에 나서기 때문에 시장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해운사들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두그룹으로 도약하려는 중견 해운사 위주로 선박 발주 협상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주 기자 ahnkj@e

# '빅5' 건설사 보금자리와 맞짱

## 2분기 1만4000여 가구 붓물...분양시장 판도 주목

'반값 아파트' 용단폭격에 속속 이던 빅5 건설사들이 2분기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어서 분양시장 판도변화가 주목된다.

빅5 건설사들은 당장 보금자리와 맞서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나 광고인도시 등 인기지역 대단지 위주로 틈새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분양일정을 미룰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6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분기 삼성·GS·현대·대우·대림 등 빅5 건설사들 분양물

량은 총 1만4076가구. 이는 지난 1분기(8193가구)에 비해 거의 두배 수준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1분기에 연기시킨 분양 물량이 많았던 데다 왕십리 뉴타운, 관선지구, 광고 등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서 미주아파트를 재건축 '반포 힐스테이트' 397가구 가운데 1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또 같은 달 인천 서구 당하지구에서 '검단 힐스테이트5차' 390가구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다음달 경기도 광

교신도시와 대전시 남일동서 각각 1970가구와 713가구 등 총 268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2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을 5월 분양한다.

총 464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44가구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도초, 역삼중, 진선여고, 중대부고 등과 가깝다. 왕십리에도 114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509가구다.

대우건설은 상동구 금호14구역에서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705가구로 이어져 이 중 145㎡의 23

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또 인천 송도지구에서 선보일 주상복합도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117~302㎡의 대형으로 구성되며, 45층 12개동 1703가구로 이어진다.

GS건설은 대림산업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 일원 권선주공아파트를 지상 13~15층 35개동 총 1753가구 규모의 '권선 자이 e편한세상'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오는 5월경 일반분양을 통해 59~195㎡ 604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도 중소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같은달 용인 신봉장이 6차로 40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 불황 해법 놓고 정부 - 주택협회 엇박자

"건설사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따내면 되겠지, 아니면 정부에서 알아서(지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설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부실한 건설사들은 털어내야 합니다."

증권 건설사들의 도미도 부도가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꺼낸 말이다.

정부가 최근 건설사 위기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최근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적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각은 더 확연하다.

전국에 11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과 특히 수도권에도 2만 가구의 미분양 가구가 적체돼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는 시각



김종겸 주택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미분양 대책 · 분양가 공개등 온도 차 어려움 토로에 부실회사는 털어내야

이다. 사정이 이 정도쯤 되자 한국주택협회가 발끈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정부의 반응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회장 자리에 취임에 김종겸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건설 사장)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을 둘러 최근 증권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분지 기자와 만나 "수도권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용인 성북동에 가보면 알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미분

양 아파트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주택가격 정책에 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요즘에 각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경쟁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각

양 아파트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주택가격 정책에 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요즘에 각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경쟁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각

이렇게 정부와 협회가 시각을 차를 드러내고 있는 동안 증권 건설사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는 6월, 9월에 위기설을 이야기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만 위주로 하는 소형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부문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하는 증권 건설사도 '최저가 공사 입찰'로 공사를 끝내고 적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기존 대책을 위주로 지원하고 추가 대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유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양가가 이미 높다.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

# 한양, 영산강 공사 '어부지리'

## 남양 퇴출에 2순위 동부 포기...차순위자로 선정

남양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영산강 하굿둑 공사를 포기하면서 당시 경쟁사로 참여했던 한양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게 됐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영산강 하굿둑 공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남양건설이 영산강 하굿둑 2공구 공사에 대한 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차순위인 한양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됐다.

발주처인 농어촌공사는 지분률 30%를 갖고 있는 동부건설에게 승

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동부건설마저 공사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시공사는 자연스럽게 한양으로 돌아가게 됐다. 동부건설 영업팀 관계자는 "남양건설의 지분 50%를 모두 떠안으면서 영산강 하굿둑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며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프로젝트 포기를 정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측에서는 이 공사를 오는 2012년까지 사업 완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



발주 가능성이 낮아 결국 차순위인 한양이 공사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산강 하굿둑 공사는 총 2052억원짜리 공사로 당시 설계심사에서 13점이 앞선 한양건설(1532억원)의 수주가 유력시 됐지만 남양건설이 1082억원이라는 사상 최저가격을 써내면서 공사를 가져갔다.

홍성일 기자 hsi@

# 가락시장 18층 상가 짓는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재건축하는 송파구 가락시장에 최고 104m 높이(18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들어설게 됐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수산물공사가 가락동 600번지 일대 부지 53만1830㎡에 건폐율 55%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는 고층의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설계 공모를 통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3층짜리 5개 동과 지상 18층짜리 1개 동 등 6개의 도·소매, 물류 및 업무지원 시설을 세우는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내 자투리 공공 공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

획시설(공원) 변경안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봉구 도봉동 4-4번지 서울창포원의 공공 공지 5만1000㎡를 포함해 49만 12만6400㎡가 인근 공원으로 편입되거나 소공원으로 바뀐다.

중구 장충동 동국대학교의 운동장과 수영장 부지 2만4000여㎡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교육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 연세대는 높이 15m의 스포츠센터, 서대문구 추계예술대는 8층짜리 복합 강의등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인 효창동 3-250번지 일대(1만8256㎡)에는 지상 9~12층 아파트 7개동 339가구가 건립된다.

김지나 기자 kin@

# 재개발 사업 간간해 진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노후도 충족여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선택 사항으로 분류했던 주택노후도 요건을 필수사항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에 고하고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점도를(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노후도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 역시 구청장이 해당 지역 정비구역 지정일로 조정된다. 현재는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2003년 12월30일로 정해져 있다. 조례안은 또 준공업 지역에 2007년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 선정때까지며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된다.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 신고를 한 자로 한정된다. 또 공공관리 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다.

홍성일 기자 hsi@

# 국민연금 서울도심 오피스빌딩 산다

## 임대수익률 겨냥 광화문·종로 일대 물색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울도심 오피스 빌딩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민연금과 부동산업계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종로구 등 사무실이 즐비한 핵심 지역에 오피스빌딩 투자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은 불황에도 국내외 기업 등의 입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대체 투자액은 총 14조원. 이중 부동산 투자금액은 1조원 안팎으로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 종로구 등 사무실이 즐비한 핵심 지역에 오피스빌딩 투자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은 불황에도 국내외 기업 등의 입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서울 도심에 위치한 랜드마크 오피스빌딩은 국내 대기업의 사옥으로 사용되거나 해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 대부분 매물이 한 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려는 광화문 등 중심 지역에 나온 매물이 거의 전무해 돈이 있어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si@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펴낸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전공 (8개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영학과
- 법학과
- 가정학과
- 컴퓨터학과
- 유아교육학과
- 간호학과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성공학사고시 |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무료 1644 - 8144**

# 아파트 청약시장 '쏠림' 심화

## 한화 '인천 에코메트로' 큰 인기...지방은 여전히 '냉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약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개발호재가 있거나 입지적으로 우세한 일부 인기지역 지역 중심의 '청약쏠림' 현상에서 감지되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매매값 하락세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제일 주의'적인 선택을 최우선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최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분양한 '인천 에코메트로3차 더 타워'는 오피스텔의 경우 282실 모집에 2587명이 신청, 평균 9.17 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전용면적 기준 p46㎡형은 94실 공급에 1085명이 청약해 11.5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p59㎡형은 94실 공급에 952명이 청약해 10.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상복합인 이 단지의 아파트는 현재 4순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장원석 에코메트로3차 분양소장은 "오피스텔은 일단 소형인데다가 금액대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게 장점"이라며 "최근 지속되



평균 9.17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된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모델하우스.

고 있는 전세대란과 인근에 학교도 잇따라 개교 중이라는 점에 중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고 수요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계룡건설이 고양 삼송에서 분양한 단지도 최근 수요자들의 청약 성향을 여지없이 나타냈다. 모두 85㎡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909가구 모집에 886명이 신청해 평균 0.9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분양업체 측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도 견본 주택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꾸준하다"며 "일산이나 덕양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삼송지구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많다"고 말했다.

계약률은 60%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구성된 보금자리주택 수요층과 민간분양의 같은 평형대 수요층이 겹치기 때문에 민간물량이라도 가격경쟁력, 입지 여건이 우세한 쪽으로 청약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대 수요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기자 kjn@

# 잘 팔리는 소형으로

## 건설사 아파트 설계변경 붐

건설사들의 아파트 설계변경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신규 분양에 앞서 건설사들은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승인 받았던 대형평수대의 아파트 가구수를 줄이는 대신 소형 평형대의 가구수를 늘리고 있다. 현 대산업개발과 쌍용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산업개발이 5월 분양할 예정인 경기 용인시 성북아이파크는 사업계획서 설계했던

126~167㎡형 가구를 84·105·124㎡로 바꿔 최종 승인을 받았다. 84㎡의 경우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네 가지 평면으로 세분화 시키기까지 했다.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보다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패턴변화가 일고 있다는 시장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쌍용건설의 부산시 장전동 쌍용에가 역시 지난해 102~257㎡ 등 중대형이던 아파트 평면을 95~149㎡로 변경했다. 쌍용건설 역시 발빠른 시장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에 나선 경우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우미건설도 전가구를 중대형인 148㎡로 승인받았지만 일부 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대형평수의 부담감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소형 평수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si@

#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 공정위...위반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채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 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

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용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 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범위만 사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y78@

# 용인 경전철 집값 살릴까

오는 7월 개통을 앞둔 경기도 용인 경전철이 고사직전인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김광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어울림 78㎡A는 전 주보다 500만원 오른 2억~2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대형 평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용인 일대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앞으로도 경전철 뿐 아니라 분당선 연장선이 용인을 지난 예정이어서 수혜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용인 부동산 경기나 미분양 해소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용인 구갈동 공공공원 관계자는 "다른 용인지역과 달리 이곳은 급매가 없다"며 "환승역인 분당선 연장선 구갈(기흥)역과 동시 개통이 이뤄지지는 않아 아직지만 불편했던 용인 구도심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새 아파트 중심으로 문의가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 수도권 아파트 경매 응찰자 '뚝'

## 금융위기 수준...낙찰가율도 하락

수도권아파트 경매 경쟁률이 16개월 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선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수(경쟁률)는 5.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16개월 전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했던

2008년 12월(4.9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평균응찰자수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최하위 수준인 4명대로 추락한 이후 12월까지 연속 3개월간 4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와 의환위기 학습효과, 가격경쟁력이 부각되면서 2009년 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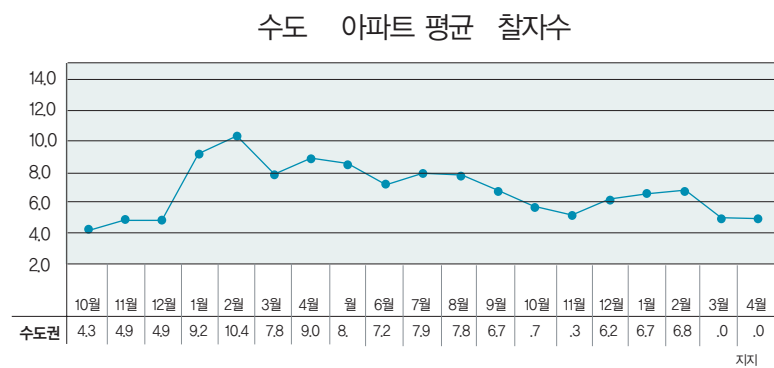
응찰자가 몰려 2월에는 10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0월 DTI규제가 강화된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응찰자가 줄어들면서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0%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달 15일까지 82.4%를 나타내 고점인 지난해 9월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옥선 강은 팀장은 "경매 법정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개찰을 해보면 제출된 입찰표의 수는 전보다 줄었다"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입찰장에 와서 분위기를 살피거나 선뜻 입찰표를 내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지나 기자 kjn@



# 2차 보금자리 내달 초 사전예약

## 임대 포함 1만8000가구...29일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예약 물량은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만8000여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2·내곡, 부천 옥길,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다음달 초 접수하기로 하고, 이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7일에는 이들 6개 지구 5만5천가구(보금자리주택 3만9천여가구)에 대한 공급물량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담은 지구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는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처음으로 10년 임대, 10년 분담임대의 일부가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돼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이들 6곳에 들어설 분양, 임대 보금자리주택 3만8000여 가구 중 1만8000여가구를 사전예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1만4천295가구)보다 많은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은 건설 물량의 8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아직 단지 설계가 되지 않은 특별설계구역 물량 등을 제외하고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75% 안팎인 1만4000~1만5000가구가 특별,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또 10년 임대, 분담임대는 임대 특성상 입주시점에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건설 물량의 50~60%선인 3000~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나 강남권의 경우 시범지구와 비슷한 3.3㎡당 1100만~1200만원선, 수도권은 700만~900만원 후반대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

# 공인중개사 응시로 10일전까지 환불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1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

좋은 보험 이야기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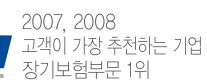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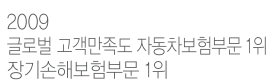
# 좋은 보험은 계산기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해상은 생각합니다. 좋은 보험은 숫자만을 고민해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계산기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고. 진심만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께 큰 보험회사가 아니라 좋은 보험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대해상의 진심에 고객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차는 하이카, 내 인생은 하이라이프



# 대신증권 48년 전통 굳게 선 대형증권사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은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다. 재벌과 은행계열 증권사가 넘쳐나는 국내 증권업계에 선 보기 드문 독립계 대형증권사로, 지난 50여 년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증권이 기록한 '업계최초'의 기록은 무수히 많다. '1975년 업계최초 증권거래소 상장', '1979년 업계최초 전광 시세판 설치', '1995년 한국최초 종합계좌제도 실시', '2001년 업계최초 누적 사이버거래액 1천조원 돌파', '2004년 업계 최초 온라인 증권거래 프로그램 수출', '2007년 업계최초 해외GDS 발행' 등 증권업계의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증권은 1975년 양재봉 창업

자가 중보증권을 인수한 뒤 사명을 '대신'으로 변경하면서 탄생했다. 1980년대에는 어려웠던 영업환경을 극복하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한 때 '기업공개를 하려면 대신증권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신증권은 기업공개와 회사채 인수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쌓았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증시호황 국면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 1984년 대신경제연구소, 1987년 대신전산센터(현 대신정보통신), 1988년 대신투자자문(현 대신투신운용), 1995년 대신팩토링을 설립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변모를 갖췄다.

대신증권을 이야기하면서 1998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사이버거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발 빠른 전산분야의 초기집중투자를 통해 타사보다 먼저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1999년 이후 온라인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대신증권은 또 한번의 중흥기를 맞았다.

현재도 '온라인거래의 최강자'란 명성을 얻으며, 명품HTS '사이보스'를 바탕으로 주식위탁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최초로 대만, 태국 등 해외로 HTS를 수출한 바 있

며, 이를 통해 국내 표준을 뛰어넘어 HTS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외형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재무구조를 정비해 초우량 클린컴퍼니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신금융그룹은 생명, 정보통신 등을 계열분리하고, 대신증권, 투신운용, 경제연구소의 증권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기하게 된다.

작년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선정하는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에 편입되면서 대신증권의 경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

이 바뀌지 않은 증권사이기도 하다. 증권업 자체가 부침이 매우 심한 산업인 만큼 이는 대신증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안정성을 보유하게 된 것은 회사 내부에 오래 전부터 구축되어 온 과학적이고 철저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 위해 대신증권은 혁신적인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그 핵심은 바로 '금융주치의 서비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특정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사전관리에서부터 감동을 주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Total'의 관점에서 접근해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대신증권은 이 서비스 시작을 기점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 비즈니스의 추진방식은 외형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도록 虎視眈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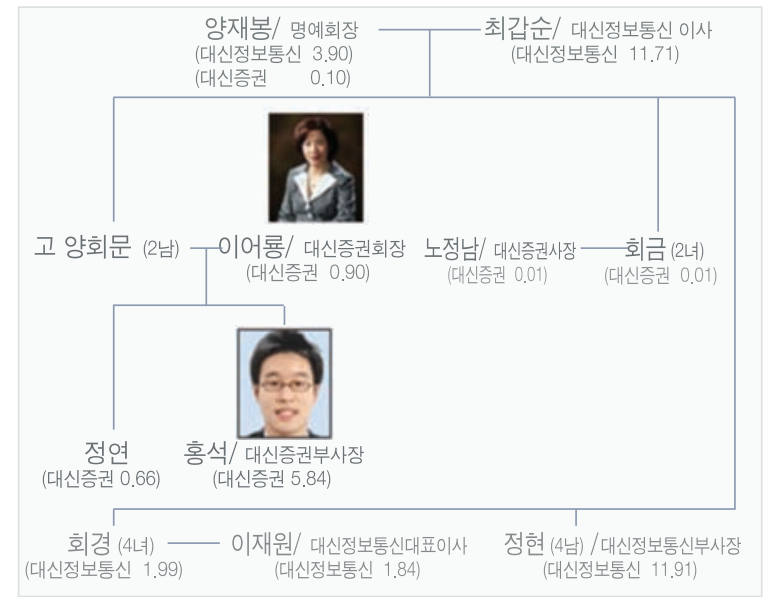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신증권 고객들이 진정한 재무적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창업자 시절부터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이들 위해 대신증권은 혁신적인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그 핵심은 바로 '금융주치의 서비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특정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사전관리에서부터 감동을 주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Total'의 관점에서 접근해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대신증권은 이 서비스 시작을 기점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 비즈니스의 추진방식은 외형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도록 虎視眈眈의

대신증권그룹 지분구조 현황 (2010. 04. 16 현재, 지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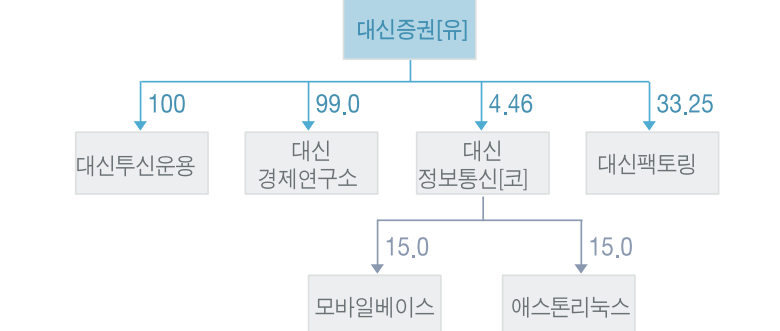
## 11년 연속 현금 배당……대형증권사 중 유일 배당지수와 기업지배구조지수 모두 포함 지난해 DJ 선정 지속가능경영지수에 편입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한국배당지수 및 기업지배구조지수에 포함되었으며, 두 지수에 모두 포함된 증권사는 대신증권이 유일하다.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은 셈이다.

대신증권은 철저한 리스크관리 능력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위기 때 더 빛이 나는' 증권사로 불리기도 한다. 5대 대형사 중 IMF를 겪으면서 유일하게 주인

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감정은 더욱 강화하고 성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빠른 속도 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대신증권만의 특유한 색깔을 낸 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최고의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임하고 있다. IMF의환위기 이전에는 차별화 전략없이 런던, 뉴욕, 홍콩, 상해, 동경, 취리히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진출했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지금은 대신증권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영업을 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지역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

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Regional IB Player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부문도 이것저것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니치마켓이라도 대신증권이 우선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환 기자 lsh@

### 대신증권이 걸어온 발자취

## 삼락증권으로 출발...한때 국내 최고 증권사 2000년 이후 쇠락...대신생명 부실 도화선

대신증권은 1962년 자본금 2000만원의 삼락증권으로 출발해 1968년 중보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1975년 상호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1976년 업계 최초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1980년 전국지점을 온라인화하면서 업계를 평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국내 증시가 활황을 맞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신증권은 종합금융그룹의 도약하며 국내 금융업계의 강자로 떠올랐다.

승승장구 하던 대신증권그룹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큰 파고를 시달리며 과거 명성을 잃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신그룹은 대신증권과 대신투신운용, 대신경제연구소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세가 크게 위축됐다.

해위현자법인들의 잇단 청산



과 함께 금융계열사들의 처분이 줄을 이었다. 특히 대신생명의 부실화는 대신그룹의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신생명은 1998년까지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이 되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게되며 최종적으로 2001년 3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또 대신증권은 2000년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대신생명

을 비롯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이 드러나 문책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양재봉 명예회장은 해임권고 및 해임시까지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받으며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후 대신생명은 공개매각을 통해 독집자에 인수됐고 보험계약 등을 독집자생명보험에 넘기면서 2003년 결국 파산절차를 밟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대신증권은 대신생명의 부실화에 대해 203억원의 책임 부담금을 물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말았다.

2000년대 초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양재봉 명예회장은 2001년 4월 둘째 아들인 고 양희문 회장에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 아이폰 전용 증권서비스 개시

실시간으로 주식시세 차트 증권뉴스 검색

대신증권이 아이폰으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신증권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아이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식시세와 시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폰 증권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이폰 증권서비스'는 아이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종목을 설정해 놓으면 실시간 시세, 차트, 증권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해외지수, 채권, 금리 및 환율정보 등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증권정보 서비스도 조회할 수 있다. 5월말까지 공인인증 기능을 탑재한 주식주문 및 계좌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선물옵션주문까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애플의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 정보이용료는 월 5천



원이다.

5월말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조건건 대신증권 E-biz부장은 "시세조회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5월말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증권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이 보다 편리한 모바일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폰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증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lsh@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 Korea Member 2009/1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보령업 1위 - 동부화재

# 왜?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 다우존스는 동부화재를 1위로 뽑았을까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기업평가에 있어 재무적 평가 중심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수로 세계 최고의 권위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평가의 기준입니다.

## 동부화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국내 보험업 1위 선정

세계적 금융사 다우존스와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스위스 SAM이 동부화재를 1등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재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까지 동부화재가 보험업계 1위임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동부화재는 기업의 책임과 고객과의 100년 약속을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동부화재

**동부화재 총자산 10조 돌파!**

동부화재의 총 자산이 1983년 대비 100배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Year	Assets (100 Billion Won)
1983	1.229
1995	1
2005	5
2009년	10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생활을 지키는 보험

**프로미카 프로미라이프**

프로미카는 앞선 서비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부화재 대표 브랜드입니다. 프로미라이프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동부화재 장기보험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 통신정책 마스터플랜이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정책이 중장기 핵심전략 부실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 방향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나 통신사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가 트렌드를 쫓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아이폰 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등 다양한 기종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아이폰 위주로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이 제작되고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

## 트렌드 쫓아 성과 내기 급급 사업자 압박 갈등 부추겨

래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진흥원 등 40여개 기관에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 중이다. 이에 반해 오픈마켓에서 운영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만 적용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마트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이용자 부담을 완화 시키겠다고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도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지와는 달리 사업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까지 무료화를 시키겠다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통신사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CID 무료화는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요금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T와 통합LG텔레콤은 같은해 2월 일부 CID 무료 요금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0~2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통신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신시장 방향을 끌어갈만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높다. 통신서비스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사업자를 리드할 만한 정책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을 보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시기를 결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자를 압박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도 수익을 내기위한 민간기업인데 중장기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고 현재 시행중인 통신정책이 미봉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배근득 기자 lob13@**

# 트위터 광고 마케팅 창구로 각광

DMC미디어·음식점·공연장 등에 활용 고객과 소통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나 브랜드들도 하나 둘씩 트위터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 기업의 특색에 맞춰 특화된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늘려가는 한편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컨버전스 기업 DMC미디어는 트위터를 통해 매일 아침 광고 마케팅에 관련한 각종 뉴스와 소식뿐만 아니라 공모전, 전시회,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광고 마케팅 전문 포털 애드와플(www.ad.co.kr)의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전문자료, 디지털 마케팅 자료 전문 사이트 DMC 리포트(www.dmcreport.co.kr)의 각종 통계자료 등을 트위터를 통해 제공하고 방문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마케팅, 광고 업계 종사자들이 트위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DMC 미디어가 운영하는 트위터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음악 사이트 멜론은 트위터 운영자가 음악 DJ로 활약하며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smk@**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컨셉 아래 매일 오전 11시 멜론이 추천하는 추천곡을 알려주는 '멜론 투데이 송'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 트위터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트위터가 국내에 확산된 초기만 해도 유명 외식 브랜드의 트위터가 눈에 띄었으나 최근에는 마니아들만 알고 있는 음식점이나, 아직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트위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 업계 관계자는 "트위터는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인 만큼 기업의 이슈 전달이나 홍보의 목적은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의견 수렴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되어야 트위터 본질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민관 기자 smk@**

# 통신업계 모바일 캠퍼스 구축 경쟁

대학도 스마트폰 지급·무선인터넷 설치

대학 캠퍼스가 학사시스템 개선과 무선인터넷 구축 등 IT를 접목한 '모바일 캠퍼스' 사업에 뛰어들며 경쟁력 강화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IT는 전통 교육 방식의 도우미 역할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학습방식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의 모바일 캠퍼스 사업은 선진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학이 가져가야 할 경쟁력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학, 학생, 교수에게 모두 윈-윈 효과를 가져오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월 광주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에는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등 3개 대학을 보유한 동서대학교 모바일 캠퍼스 및 유무선 통합서비스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캠퍼스 라이프 스타일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는 두꺼운 전공 서적대신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 눈에 띈다. 이처럼 캠퍼스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통신업계도 대학 특성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 KT와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기반 모바일 캠퍼스 구축에 나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전교생에게 아이폰을 지급하며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대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동서대학교에 ▲안정적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용회선 망 고도화 ▲인터넷 전화망 구축 ▲와이파이(Wi-Fi)망 구축 등 학내 유무선 통합서비스(FMS)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듯 SK브로드밴드 기업 사업부문장은 "광주교대와 강남구청에 이어 이번엔 부산 지역 3개 대학교로 유무선통합(FMS)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캠퍼스를 주도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무선 선 기술력과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공공분야 유무선통합 서비스 선두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득 기자 lob13@**



**LG CNS-드림위즈 모바일사업 제휴** LG CNS는 22일 서울 회현동 LG CNS프라임타워 본사에서 김대훈 LG CNS사(왼쪽),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분야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 국내 첫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

사용자 몰래 국제전화...약 150건 신고

국내에서 무단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피해를 주는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서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무단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비싼 요금을 내게 하는 윈도우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용 악성코드 '트레드다이얼(TredDial)'이 등장해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트레드다이얼 악성코드는 지난 13일 첫 발견된 후 19일 변종이 추가 발견됐다. 이번 악성코드는 모바일 게임인 '3D 인터 테러리스트 액션'과 동

영상 관련 유틸리티인 '코덱팩'에 포함돼 배포됐으며 50초마다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다. 현재까지 확인된 번호는 6개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쿼즈쇼, 투표 등에 사용되는 번호로 분단 위 과금을 하는 것들이다. 감염됐을 경우 전용백신을 안철수연구소(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vaccView.do?webVaccBoardsVo.ssq=96)에서 내려받아 검사/치료하면 된다. 아울러 평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전화 발신 금지 기능을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심민관 기자 smk@**

# 스마트 모바일에 1조5천억 투자

정부가 모바일 오픈스마트 스마트 모바일 산업에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제2의 인터넷 강국 실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에서 방통위가 천명한 '무선 IT 강국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해 향후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에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며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을 투자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

파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9000억원의 매출증대와 4만2000여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 유통, 교육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득 기자 lob13@**

# KT 가구단위통합 요금제 도입

QOOK & SHOW 가입자가 가족 무제한 통화

최근 통신업계가 자사 유무선 회선간 망내 할인 및 무료통화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KT가 가구단위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 KT가 선보인 가구단위통합 요금제 'QOOK Set 통'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유선전화, TV를 묶어서 4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무선 결합가입자와

룩앤쇼(FMC)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무제한 프로모션'과 '룩앤쇼 더블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한다. 가족 무제한 프로모션은 유무선 결합가입자가 통화료 부담 없이 가족간 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결합의 경우 제공되는 기본료 할인과 가족간 통화 50% 할인 혜택이 일부 무선 상품(제휴요금제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족 무제한 상품 이같은 점을 보완해 가족간 무제한 통화 혜택을 강화했다. 또 가족간 통화량이 적어 기존 기본료 할인혜택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 된다. 이는 이번 결합요금제 출시로 각 상품별 개별약정으로 이용하던 가구가 룩앤쇼(FMC) 2대를 신규로 가입할 경우 통신비가 월 약 14만18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낮아져 연간 최대 37만원 정도의 가계 통신비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근득 기자 lob13@**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습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일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와 [이] 투 데 이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 부산국제모터쇼 29일 개막...국내 신차 '향연장'

### 현대기아차 아반떼 후속모델 · K5 선보여...수입차 대거 불참속 스바루 · 로터스 참가

2010 부산국제모터쇼가 오는 29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부산모터쇼의 주제는 '푸른 미래를 향한 자동차의 꿈(Drive green, Live clean)'.

당초 올해 부산모터쇼는 수입차들의 대거 불참으로 우려가 컸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모았던 신차를 쏟아내면서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차 중에는 스바루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모

터쇼에 참가해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인 로터스도 모습을 비출 예정이다. 그 외에 전차가 및 전기 이론차 업체들도 참가해 전기차 기술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적용된 바이오이오커 온열시트는 열선을 중심으로 데워졌던 기존 열선시트와 달리 발열기능을 갖춘 최첨단 원단을 사용해 시트 전반에 균일한 열이 발생하며 은(銀)성분이 함유돼 항균기능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 효과로 쾌적한 운전환경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새로운 엔진을 얹었으며 외관 또한 다양한 바디 킷과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등 기존 모델과 차별성을 뒀다는 것이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트카를 선보이는 것 외에 C200을 활용한 전기차와 전문 작가가 제작한 아트카 등 총 3대의 C200 콘셉트카를 부산모터쇼에 전시한다.

C200의 모델명은 '코란도C'로 확정된 상태며, 오는 7월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인 아반떼 후속 모델 MD(프로젝트명)의 외관을 부산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MD의 외관은 신형 쏘나타처럼 쿨해 보이는 부드럽고 날렵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아차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K5'의 편의사양은 신기술 사양이 대거 탑재됐다. 'K5'에는 첨단 감성공학 적용한 바이오이오커 온열시트, '온열 스티어링 휠' 등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까지 배려한 신기술이 적용됐다.

르노삼성은 부산공장이 있는 만큼, 부산모터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르노삼성은 부산모터쇼에서 '뉴 SM3 2.0' 모델 등 총 11대의 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GM대우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자사의 첫 준대형차 VS300과 내년 출시할 레조 후속 '올란도'를 부산모터쇼를 통해 선보인다.

스바루는 이날 국내 판매가격과 상세제원도 이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수제 스포츠카 제조사인 로터스는 스포츠카 '340R'과 'E-1'을 전시한다.

김영진 기자 yjkim@

## 급발전 방지 '스마트 페달' 차량 뭐가 있나?

### 현대기아차 지난달부터 전자중 장착...르노삼성도 98년부터 전 차종 적용

최근 미국내 토요타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 급발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스마트 페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페달은 급발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차입제중 유일하게 지난 1998년 SM5를 첫 출시했을 때부터 스마트 페달을 장착한 이후, QM5, SM7, SM3 등 출시되는 신차에 모두 스마트 페달을 장착해 오고 있다.

을 때 신호를 주는 예방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차입제 역시 닛산(인퍼니티 포함)을 제외하고 토요타나 혼다는 아직 스마트 페달을 장착하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수입차업체까지 아직 스마트 페달을 장착하지 않은 업체에서부터 전자중에 장착하고 있는 업체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향후 스마트 페달을 전자중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8년 중반부터 모델별 최고급 트림에 스마트 페달을 장착해 오고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전자중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 측은 지난 6일 리콜을 발표하며 오는 9월경 스마트 페달을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해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요타 리콜 사태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스마트 페달 장착 유무가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입차 업체 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급발전 방지를 위한 스마트 페달 장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페달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경우, 스로틀 컨트롤(throttle Control)을 통해 엔진 스피드를 조절해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고도 불린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4월부터 신형 쏘나타에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기본 사용으로 장착하는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기아차 역시 다음달 출시될 중형 신차 K5에 차체자세제어장치(VDC)와 함께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차업체측에서는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스마트 페달을 장착해 오고 있고, 포드, 푸조 등은 아직 스마트 페달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푸조를 수입하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에는 스마트 페달은 아니지만, 급발전 징후가 있을 때 신호를 주는 예방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즉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 페달보다는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되는

르노삼성의 경우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 1998년 SM5를 첫 출시했을 때부터 스마트 페달을 장착한 이후, QM5, SM7, SM3 등 출시되는 신차에 모두 스마트 페달을 장착해 오고 있다.

이때 푸조를 수입하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에는 스마트 페달은 아니지만, 급발전 징후가 있을 때 신호를 주는 예방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이때 푸조를 수입하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에는 스마트 페달은 아니지만, 급발전 징후가 있을 때 신호를 주는 예방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 기아차 스포티지R 中시장 첫선

### 2010 베이징모터쇼 참가...K7 등 총 15대 전시



기아자동차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되는 2010 베이징모터쇼에서 도시형 SUV '스포티지R'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발표회를 가졌다. 올 하반기 중국 시장에 본격 판매에 나설 '스포티지R'은 역동적인 세단 감각의 진보적인 스타일과 함께 강력한 동력성능, 최고급 편의사양들로 대거 무장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을 유혹한다는 계획이다.

마력, 최대토크 20.1kg·m의 2.0 세타II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했으며,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 변속 구간별 동력손실을 최소화해 연비 향상을 구현하고 변속감을 개선시켰다. 또 ▲차체자세제어장치, ▲파노라마루프, ▲DVD & 내비게이션, ▲냉난방 통풍시트, ▲진폭감응형타이어 등 고급 대형차 수준의 최고급 사양들을 대거 적용해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켰다.

기아차 이혁근 사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스포티지R은 날렵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의 기아차 디자인 DNA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동력성능, 도심주행에 어울리는 화려한 인테리어 등이 특징"이라며 "스포티지R을 통해 운전자는 안전한 생활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

## 현대차 카자흐스탄 상용차 생산 구축

### 5년간 5000대 생산...관세절감 등 경쟁력 확보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현영 현대차 부회장과 스마굴로프 아스타나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 현지 조립사업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입 관세를 상용차의 경우 기존 0%에서 25%로 인상했다. 현지 조립을 추진할 경우 관세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입찰 물량에 대한 우선권 확보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

## GM대우 '서울 디자인 스튜디오'

GM대우자동차는 지난 20일 '2010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에 '선형 디자인 스튜디오'를 새롭게 열었다.

석, 첨단 전자기기와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등 GM과 GM대우의 미래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 강남 지역에 문을 열게 된 'GM대우 디자인 스튜디오'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포함해 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 스튜디오는 GM과 GM대우 미래 제품 디자인 방향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이탈리아 토리노에 이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곳은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 센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 및 소형차의 내외관 스타일링, 색상과 소재의 트렌드 분석, 첨단 전자기기와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등 GM과 GM대우의 미래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다.

이곳은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 센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 및 소형차의 내외관 스타일링, 색상과 소재의 트렌드 분석, 첨단 전자기기와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등 GM과 GM대우의 미래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르노삼성 부산갤러리 방문객 25만명 돌파



르노삼성이동차는 지난 20일 부산공장에 위치한 르노삼성 갤러리의 방문객이 지난 2001년 6월 문을 연 이래 누계 2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부산 갤러리는 자동차의 역사와 구조 등 자동차 전반에 대한 정보는 물론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SM시리즈 및 QM5의 특징점과 각종부품, 르노그룹의 역사, 르노삼성 공장 모

형, 부산지역 공헌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다. 지난 2001년 6월 '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르노삼성 부산갤러리는 지난 2006년 9월 '르노삼성 갤러리'로 세단장 했으며 유치원생부터 국회의원, 외국인까지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일 평균 2500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

## 현대차 美서 '스톱 & 고' 시스템 장착

### 정차때 시동 꺼지고 출발때 다시 걸려

현대자동차가 2012년형부터 북미 수출 또는 현지 생산 모델에 대해 '스톱 & 고(Stop & Go)' 시스템을 장착해 연비를 향상시킨다.

어를 가져온 연비향상 시스템이다. 신호대기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멈추면 동시에 시동이 꺼진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에는 엔진 시동이 꺼져있는 것. 이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그 즉시 다시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엔진 가동시간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난 20일 블룸버그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2012년 미국 사양부터 정차때 시동이 스스로 꺼지고 출발 때 다시 시동이 걸리는 '스톱 & 고'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다.

교통 정체가 빈번하고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에선 이미 현대차를 비롯해 많은 양산차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시장에서

현재 '스톱 & 고'는 현대차의 유럽버전에 장착돼 있다. 메이커별로 '스톱 & 고' 또는 '오토 스톱' 등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차에서 아이디

현대자동차가 2012년형부터 북미 수출 또는 현지 생산 모델에 대해 '스톱 & 고(Stop & Go)' 시스템을 장착해 연비를 향상시킨다.

일본 메이커와 함께 연비가 좋은 차로 손꼽힌다. 현대차는 향후 '스톱 & 고' 시스템 장착으로 평균연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른 연비절감 효과는 3% 인위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기아차의 이 시스템 장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2~3년안에 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미 수출차들이 이 같은 연비절감 시스템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북미 수출형이나 현지 생산모델에 스톱 & 고 시스템이 장착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내 내수 일부모델에도 이같은 연비개선 장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토요타 일산서비스센터 오픈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토요타 용산 딜러가 22일 경기도 일산 지역에 '토요타 일산 종합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일산 종합 서비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49㎡로 일산지역 수입차 중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서비스 센터이다.

공한다. 특히 '토요타 일산 종합 서비스 센터'는 40개의 스톡을 바탕으로 연간 2만대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경쟁비는 물론 차체 및 부품 도장 등의 중정비 서비스도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춰 경기 북부 지역의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토요타 일산 종합 서비스 센터'는 40개의 스톡을 바탕으로 연간 2만대의 차량 정비 가능하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타 교육센터를 활용해 첨단 정비 기술과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

## 폭스바겐 세계 판매 24.6% 증가

폭스바겐 그룹은 2010년 1분기 총 173만 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139만 대) 대비 2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평균 19.4%의 성장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폭스바겐 그룹의 실적은 괄목할만한 수치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1분기에만 총 45만7300대를 판매해 작년 같은기간(28만4200대) 대비 60.9%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 아침식사 안하신분 간편식으로 'OK'

유통업계 스프에서 모닝두부까지 초간편 대용식 잇따라 출시

바쁜 출근과 등교 준비로 아침을 거르기 일쑤인 '아침식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 외식업체들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아침을 먹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바쁜 준비시간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초간편 아침대용식과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 **시리얼의 변신**= 아침대용식 중 오래 전부터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았던 '시리얼'도 성인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제품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요즘 시리얼은 도정을 하지 않고 '통곡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켈로그의 '곡물 이야기', 포스트 '홀앤올'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 **떠먹는 요구르트**= 최근엔 유업체들도 아침시양족을 노린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식후의 간식개념이었던 맛있는 유제품 대신 곡물과 다양한 천연 과일을 포함한 제품들을 선보이

◇ **이색 아침대용식**= 아침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색 제품들도 각광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모닝두부'는 애초에 아침 대용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출시된 소포장 단량 제품이다. 기존 상급육 및 맛살이 부부는 물론 최근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이듬해인 2007년 30억 원 대의 매출에서 2008년 70억 원, 지난해는 9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뚜기의 컵형태 누룽지 제품인 '옛날 구수한 누룽지'는 2005년 매출 10여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0억 원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 **물부어 먹는 수프**= 대량 청정원은 초간편 스틱형 수프를 아침대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12가지 곡물과 12가지 채소로 만든 '수프타임 12곡물'과 '수프타임 12아재'가 바로 그것. 이 제품이 아침대용식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바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방식에 있다. 커피믹스 형태의 봉지를 잘라 종이컵에 담고 따뜻한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청정원은 즉석수프 시장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침대용식**= '현미찰곡'은 압축하지 않고 곡식 원형을 살려 식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신경썼다. 또한 시리얼에 과일을 섞어 '틸로스' 스트로베리크런치의 경우 말린 딸기가 거의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요즘 인기인 그래놀라 제품에도 과일 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래놀라는 곡물을 물엿이나 꿀로 묽게 달콤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 **한국아쿠르트의 '슈퍼100 브런치'**는 가벼운 아침식사를 즐기는 20~30대 여성을 위해 5가지 무슬리와 사과가 함유된 떠먹는 브런치 요거트다. 무슬리는 열을 가하거나 튀긴 시리얼이 아닌 밀, 보리, 헤이즐넛, 기장, 귀리의 5가지 곡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시켜 만든 식품이다. 매일유업에서 출시 2개월만에 하루 평균 17만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무침가 건강 요구르트

◇ **이색 아침대용식**= 아침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색 제품들도 각광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모닝두부'는 애초에 아침 대용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출시된 소포장 단량 제품이다. 기존 상급육 및 맛살이 부부는 물론 최근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이듬해인 2007년 30억 원 대의 매출에서 2008년 70억 원, 지난해는 9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뚜기의 컵형태 누룽지 제품인 '옛날 구수한 누룽지'는 2005년 매출 10여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0억 원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 유통업계 新소비층 '男心 잡기' 경쟁

요리교실 및 전용 화장품샵 등 서비스 다양



◇ **남성 전용 화장품**= 국내 최초의 남성 전용 화장품인 맨스튜디오를 오픈했다. '국내 최초 남성 전용 토털 그루밍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픈한 이 곳은 남성들이 화장품을 구입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백화점 업계도 남성 고객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충무로 본점 인근에 30~40대의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인들이 많은 것에 착안해 남성전용 멤버십 제도인 S-OFFICE를 개설했다. 실제 두 달만에 3000명의 회원을 확보했을 정도로 남성 직장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밖에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본점도 남성 액세서리 전문매장인 파리바(Paris Bas)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커피나 생과일주스를 마시면서 남성용 액세서리를 고를 수 있는 바(Bar) 형태의 매장이었다.

◇ **요리교실**= 이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남자들을 겨냥한 강좌와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우고 남성(男心)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샘플식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교실 지미원에서는 최근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신설했다. '남자들의 맛있는 수다'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 요리교실은 다른 수업과는 달리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 2월 서울

◇ **백화점 업계 봄 세일 실적 '대박'**  
백화점업계가 올 봄 정기세일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 소비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전년 대비 추운 날씨로 인해 가죽재킷 카디건 등 아우터(겉옷) 의류 매출이 크게 신장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봄 세일 기간인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매출이 기존 점포 기준으로 작년 봄 정기세일 때보다 9.1% 상승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정기세일 실적이 전년 대비 13%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1개 점포의 봄 정기세일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6% 늘어났다. 이밖에 신세계백화점도 이번 봄 세일에서 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작년 세일보다 23.6%나 실적이 증가했다.

◇ **아웃도어 재킷 변신**  
새롭게 선보였다. K2 EXM 윈드 재킷은 가벼운 무게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초경량 재킷과는 달리 움직임이 많은 어깨와 팔 부분에 스트레치 원단을 적용해 활동하기 편하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 노스페이스도 독자 개발한 초경량 소재 '하이벤트 2.5 레이어'로 제작한 아웃도어 재킷을 올 봄 시즌용으로 출시했다. '블로섬(여성용)·엠프(남성용)' 재킷은 신축성 및 방수성 등이 우수하고 겨드랑이 부위 움직임을 고려한 액티브 조인트 소재,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드 등이 특징이다. 몽벨은 56g짜리 초경량 'EX 윈드 재킷'을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 '보다 가볍게 화려하게'...아웃도어 재킷 변신

◇ **화산재 상륙...호흡기보호제품 인기**  
코스제기·마스크 등 얼굴보호제품 판매 급증  
완연한 봄 날씨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 '유럽발 화산재'가 우리나라 상공을 23~27일 사이에 통과할 예정이다. 화산재는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흡기 질환이나 안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유발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화산재'에 대비하기 위한 용품들이 반짝 효과를 보고 있다. 마스크는 물론 화산재가 코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색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는 약 1000여 종의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코마스크, 코세제기, 마스크 등 호흡기를 보호하



◇ **유럽 화산재 상륙...호흡기보호제품 인기**  
코스제기·마스크 등 얼굴보호제품 판매 급증  
완연한 봄 날씨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 '유럽발 화산재'가 우리나라 상공을 23~27일 사이에 통과할 예정이다. 화산재는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흡기 질환이나 안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유발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화산재'에 대비하기 위한 용품들이 반짝 효과를 보고 있다. 마스크는 물론 화산재가 코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색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는 약 1000여 종의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코마스크, 코세제기, 마스크 등 호흡기를 보호하

##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

**B2ST 사진 및 사인 수록**

### 비스트(B2ST) 손동운 아버지, 손일락 교수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세상을 향해 꿈을 쫓아라”

우리는 남모르는 실패와 좌절을 겪은 그룹이다. 실패와 좌절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재활용'이라는 놀림과 야유였다. 이 책은 1등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준다.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지만 백조가 될 끝까지, 루저, 실패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윤두준(비스트 리더, 보컬)

손일락 지음 | 신국판 변형 | 11,000원

Tel 02-322-6144/ Fax 02-325-6143/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 라디오는 지금 '여성 시대'

## 봄 개편 맞아 주현미-현숙-정가은등 잇단 DJ로 등장

지상파 방송 3사가 봄철 개편을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대폭 교체했다. 특히 생애 첫 DJ로 데뷔하는 트로트 가수 주현미와 현숙을 비롯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 방송인 정가은 등 여성 DJ들의 대거 투입이 눈에 띈다. 신선한 진행자들의 등장이 라디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가 KBS2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맡아 지난 19일부터 매일 저녁 8시 5분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라디오 DJ에 도전한 주현미는 "출근 라디오 DJ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다"며 "편안한 친구 같은 DJ가 돼서 수다 떨 듯 편안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요녀' 가수 '현숙도 오전 11

시 5분에 방송되는 SBS 러브 FM '브라보 라디오'를 통해 생애 첫 DJ를 맡았다. 지난날 29일 첫 방송을 시작한 현숙은 특유의 밝고 통통 튀는 목소리로 청취자들에게 생기 있는 아침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현숙은 "나로 인해 다시 트로트 음악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동료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는 가수 메이비의 바통을 이어받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KBS 2FM '나르샤의 불뿔을 높이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는 말솜씨와 센스를 발휘해온 나르샤는 세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청취자들의 귀를

종긋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데뷔 초 라디오를 6개월 정도 진행했었는데 4년만에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하게 돼 영광이다"며 "꼭 청취율 1위를 만들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피력했다. '예능계의 불부침' 방송인 정가은은 아나운서 정지영이 10여 년간 진행해온 SBS 파워 FM '스위트뮤직박스'의 DJ를 맡아 라디오 진행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가은은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신인자인 정지영 아나운서가 너무 잘해서 부담도 되지만 발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다가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수 아이유는 비스트 멤버 윤두준과 함께 MBC FM4U '친한친구'의 임시 DJ로 나선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2년간 '친한친구'의 DJ를 맡았던 태연이 소녀시대의 해외 스케줄과 뮤지컬 출연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이유와 윤두준이 그 뒤를 잇게 된 것. MBC 라디오 제작국 측은 "윤두준과 아이유가 26일부터 2주간 임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윤두준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재치, 아이유는 발랄함과 순발력 있는 입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고정 DJ로 활동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며 "추후에 다시 DJ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예 기자 sysy@



## 윤진수 '롤러코스터' 등장

모델·로토킴 출신 글래머러스한 몸매



봄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케이블채널인 tvN의 '재밌는 TV 롤러코스터'에 윤진수(사진)라는 뉴 페이스가 등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 17일 방송된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에서 남자들

이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패션과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의 패션에 깜짝 출연했다.

윤진수는 172cm의 큰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그녀는 지난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아이스박스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슈퍼모델 출신이다.

또 그녀는 SBS 로토킴 추첨방송인 '나눔로또 MC'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종영된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도 출연했다. 올초 MGB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배우로서의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날 방송에서 윤진수는 잡자리 선글라스와 대형벨트 등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지만 여자들이라면 공감 갈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박태진 기자 tjipppa@

## 가요계 별들의 축제 '드림콘서트'

비·이효리·원더걸스 등 빅스타 총 출동

가요계 별들의 축제 '드림콘서트'가 내달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드림콘서트 '는 '사랑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최근 컴백한 가수 비와 이효리를 비롯 미국에서 활동 중인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에프터스쿨, 포미닛, 티아라, 다비치, 에프엑스, 레인보우 등 인기 걸그룹들과 SS501, 슈퍼주니어,

2PM, 사이니, 엠블랙, 비스트, 유키스, 포커즈 등 아이돌 스타들이 총 출동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침체한 대중음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리는 행사"라며 "올해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무대도 꾸민다"고 전했다.

조승예기자 sysy@



# 2PM·재범 따로 똑같이 활동 재개

각각 새 앨범·영화 및 음반작업 참여

'집승돌'이라 불리며 아이돌그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2PM과 이 그룹에서 영구 탈퇴한 재범이 같은 시기에 각자의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재범은 지난 2월말 2PM을 영구 탈퇴하며 미국 시애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왔고 2PM 멤버들은 각종 예능프로와 드라마로 개별 활동을 해오다 이번에 뚝치게 됐다. 먼저 2PM은 지난 19일 캠프엔 싱글앨범 '돈't 스톱 돈't 스톱 (Don't Stop Can't Stop)'을 온라인에서 공개한데 이어 22일 오프라인에서도 발매를 시작했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음반에는 2PM이 겪은 시련의 아픔, 팬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시련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시련이란 재범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팀이 각종 무어에 시달리는 등 멤버들이

겪은 마음고생을 뜻한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타이틀곡 '위드아웃 유(Without U)'는 사랑하는 여자의 거짓말에 상처 입은 남자가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마음을 담았다. 주요 멜로디가 피아노 연주로 진행되며 전자기악기인 신시사이저가 더해진 하우스 곡이다.

재범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비비이대회 참가 및 댄스 영상 등을 게재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는 한미 합작영화 '하이프 네이션' 촬영을 위해 오는 6월 한국에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2TV '연애가중계'에서는 재범이 비비이 그룹의 성공스토리를 그린 한미 합작영화 '하이프 네이션'에 캐스팅돼 영화 촬영을 위해 6월에 한국에 온다고 전했다.



또 재범은 최근 한국계 래퍼 덤파운디드의 신곡에 피쳐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수 복귀설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덤파운디드는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 무료 배포한 신곡에 재범과 클라라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ipppa@



장동건-고소영, 그림 같은 웨딩사진 '눈부서' 한국의 '브랜젤리나 커플'로 불리는 장동건-고소영의 웨딩 사진이 지난 21일 공개됐다. 두 사람은 내달 2일 오후 5시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 김연아 천안함 희생 장병 5000만원 쾌척

'피겨퀸' 김연아가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김연아는 지난 16~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CC 스퀘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의 입장 수익금 중 5000만원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위로하는 성금으로 내놓았다.

스포츠 마케팅 회사 JS스포츠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비탄에 빠진 희생자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뜻이다"며 "이번 아이스쇼를 찾은 관객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 티아라 함은정, 드라마 '커피하우스' 캐스팅

걸그룹 티아라의 함은정(사진)이 SBS 드라마 '커피하우스'에 주연급으로 출연한다고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 19일 밝혔다.

'커피하우스'는 표민수 PD가 연출한 히트작 '풀하우스'의 뒤를 이을 로맨틱 코미디로 함은정은 극중 9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자 궁전 커피숍의 주인

딸 강승연을 연기한다.

표 PD는 "함은정이 아역 배우 출신이어서 연기력이 안정됐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캐스팅 이유를 말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함은정은 지난 16일 '커피 하우스'의 대본 리딩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ipppa@

# 사회복지사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보험, 은퇴 후 삶을 바꾼다

적립형에서 퓨전형까지 다양...내게 맞는 상품 골라야

최근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은퇴설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50대나 60대에 은퇴한 후 매월 생활비를 받아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연금보험도 금융상품인 만큼 나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에는 정해진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정액형 연금보험과 펀드에 보험료의 일부를 편입해 운용한 후 배당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최근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하거나 종신보험의 기능을 합친 퓨전형 연금보험도 있으며 보장 내역을 강화하거나 세(稅)테크 기능을 결합한 연금보험도 있다. 투자성이 강한 변액연금보험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금 개시시점 이전에도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변액보험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존해 주는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 삼성생명 SAMSUNG 리더스

투자 성향에 따라 총 8가지 펀드 선택

삼성생명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연금액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리더스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로 투자되는 펀드가 총 8가지로 다양하여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주식 간접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일반주식형 또는 그로스주식형을, 투자 선호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삼성그룹주식형 펀드를 고려해 볼만 하다. 그 외 더블인덱스주식형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계약적립액이 증감되며, 개시된 후에는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부리된다. 연금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눈에 띈다. 최초 가입 시에는 종신연금형으로 자동선택이 되지만 실제 연금을 받을 때 다양한 형태(확정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플러스형은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다.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연금지급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 계약자가 신청하면, 적립액의 일정비율(0~50%)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플러스형은 사망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며,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 KYOBO 교보생명 교보100세시대

연금 받는 기간 실적배당...중도인출 가능

교보생명은 연금수령 기간에도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연금액을 늘리는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미국 등 선진국에 편화된 '실적배당종신연금' 상품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속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연금액에 더해 주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생존기간 내내 투자가 가능해 투자실적이 좋으면 연금재원이 늘어 3년마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투자수익이 좋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한 번 오른 연금액은 그대로 보존해준다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 이후 중도에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상품은 연금을 수령한 후에는 해약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자녀결혼자금, 치료비 등 노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연금개시 이후의 사망보장 기능도 눈길을 끈다.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하더라도 남은 적립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으로 유족의 생활자금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단기채권형, 채권형 4가지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편입 비중은 연금 개시 이전은 50%, 이후에는 30% 이하다. 월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에 따라 최고 2%까지 할인혜택이 있어 절약되는 보험료만큼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 한화금융네트웍스 대한생명

## 플러스UP

10년 지나면 주가 하락해도 최저 보증

대한생명의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지켜주는 상품이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최저 보증한다. 또한 이후 3년 시점마다 6%씩 최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년납의 경우 10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의 100%가 되고, 13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최소 납입금액의 106%가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이후에도 같은 형태로 매 3년마다 112%, 118%의 형태로 최저보증금액이 6%씩 늘어난다. 다른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이 연금개시시점에만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해약시의 원금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익이 나와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매 시점별로 해약환급금이 최저 보증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 플러스UP변액연금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다.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옵션선과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식이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증해 줘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연금개시시점은 45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금수령 이전에 운용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 1년에 12번까지 해약환급

금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인 보장기능도 추가했다. 가입 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원, 재해 사망시에는 1200만원의 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된다. 또한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15개가지 특약을 통해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납입면제특약 가입시 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전 매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하는 상품구조와 파생상품을 채권형펀드와 연계한 구조적 독창성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알리안츠와 함께 [행복자산]을 만드세요

# 매일 평가해서 가장 높은 연금보증자산을 확정짓는 나만의 적립방정식

연금보증자산이 오른 달엔 오른 만큼 그대로!  
주가가 내려도 한번 올라간 연금보증자산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위한 [행복자산]  
알리안츠와 함께 높이 쌓으세요



생명보험협회 심의결 제2010-236호(2010.3.25)

## 무)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 1. 매일 챙겨주는 STEP UP 시스템**  
매일 Step up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챙겨 연금보증자산 상승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14년~20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100% 최저보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1년 이상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110% 최저보증 (단, 중도해자로 인한 원금손실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2. Auto Balancing (자동재배분) 기능**  
Life Cycle에 따라 가입초기에 높은 성장자산 펀드비율(주식형 펀드)로 시작하여 연금개시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 펀드비율(채권형 펀드)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으로 연금보증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 업계 최초 최저연금보증수수료 면제**  
업계 최초로 최저연금보증수수료(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고객이 낸 주계약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최저연금보증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투자형 상품으로 주식시장의 하락 또는 채권 시장의 변동으로 투자리스크가 발생하여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유원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특별계정에 투입,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립되어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연금보증자산인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적립금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해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경우는 알리안츠생명에 있는 고객보험계약자님의 모든 예금보도 대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수익자일 경우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 적립금 모두에 대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동 전환하여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단 연금개시시점이라도 성장자산주식형펀드비율이 0%가 될 경우 일반계정으로 자동 전환되어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일반계정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특별계정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무)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allianzlife.co.kr 상품 상담 및 문의 : (02)3299-5800



신상품 출시기념 이벤트 (4/1~5/31)

알리안츠 어드바이저를 만나보세요. YF쏘나타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경품의 재제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 수호천사 주식회사 동양생명

## 수호천사 더블업 LTC

장기간병(LTC)시 연금액 2배 지급

동양생명은 투자실적에 따라 납입금액보다 최대 200%까지 최저보증 해주고 LTC(장기간병, Long Term Care)가 발생하면 지급 받을 연금의 두 배를 최대 10년간 지급 해주는 '수호천사 더블업LTC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투자 성과로 물가상승률을 보완하면서 일정 비율의 투자 성과를 지켜주는 최저 보증 제도 장점, 그리고 은퇴 후 발생하는 장기간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일석 삼조의 LTC변액연금보험이다. 예를 들면 연금 수령 전 총 납입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 번

이라도 도달하게 되면 이후 투자 수익 약화 시에도 200% 해당금액을 최저 보증해 준다. 여기에 연금 수령기간에 LTC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동안 두 배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LTC발생 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은 LTC보장특약 가입시 80세 이전에 LTC(장기간병)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LTC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 시점 적립액의 50%이내에서 일시로 지급받거나, 상속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노후

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계정전환음션(Knock-out)으로 2년 이상 계약한 보험에 한해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 중 LTC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있다. (납입면제형 선택식) 이 외에도 연간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해약환급금의 70%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수수료 없음, 연간 12회 한) 또한 최대 1.5%의 고객보험료 할인혜택에 장기납입 할 경우 보너스 적립금의 혜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llianz 파워밸런스

## 파워밸런스

시장 변화 따라 펀드 자동 재배분

알리안츠생명은 매일 스텝업 자동 시스템을 적용한 (무)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스텝업(Step up) 자동 시스템이란 투자 수익률이 전달에 비해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해당월의 최저연금적립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하면 기존에 확정된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한 번 올라간 최저연금적립금은 이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기존에도 1년~3년마다 스텝업 기능을 적용하는 상품은 있었지만 이 상품은 매월로 평가기간을 짧게 하여 최저연금 보증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이 상품은 고객별로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펀드 자동 재분배 (Auto Balanc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입 초기 연령이 낮은 때는 주식형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다가 (최대 80%,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연금개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형펀드 비중을 늘려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부터는 최저연금적립금이 모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어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운용된다. 운용 펀드는 코리아인덱스펀드, 코-원자재인덱스펀드, 채권형펀드 등 3종류가 있으며 최저연금보증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가 상승시에는 올라간 금액의 최고 한도를 두지 않아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반면 투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원금의 100~110%(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4~20년일 경우 100%, 21년 이상은 110%)를 보장해준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스텝업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연금수령방법은 종신, 상속, 확정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56세이고 연금개시 연령은 만 45세부터 7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 ING생명 플래티넘

## ING생명 플래티넘 즉시연금

가입 즉시 연금 수령 안정된 노후 생활

ING생명의 (무) 플래티넘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플래티넘 즉시연금은 평생 이룬 자산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고객이나 연금 가입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 가족 구성원을 위한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 절세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성공적 노후 플랜을 제시한다.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 가입 즉시 연금이 지급되어 미리 연금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연금형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이자로 연금이 지급되고, 사망 후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연금 이자가 지급되어 부동산의 급매 없이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확정연금형 같은 경우 10년·15년·20년 기간을 설정하여 설정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나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단 상속연금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플래티넘 즉시연금 보험'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안전한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 ‘車+상해+실손...’ 통합보험 삶을 바꾼다

## 보험 하나로 위험 동시보장...중복가입 꼭 확인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가지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통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통합보험은 가족단위 계약이 가능해 가족 구성원의 위험관리까지 통합할 수 있고, 개별 상품에 따라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경제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의 통합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등의 보험에다 자동차보험까지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 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통합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가입 후 특약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통합보험 가입 후 운전을 시작했다면 별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통합보험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날 때도 가입 추가가 가능하며 주택구입시에도 주택화재보험을 통합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때문에 통합보험은 하나의 상품과 각각의 특약으로 묶여 모든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료도 개별 가입했을 때보다 20~30% 저렴한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합보험의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통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보험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화재손해는 물론 현금급 통한 생활자금

삼성화재는 주택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도난사고, 상해 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해주는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 집'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생길 경우 실손보상해줘 건물가액 2억원인 건물을 가입금액 1억원인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후 화재로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손 보상이 적용돼 손해액 50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연동형(1종)과 금리확정형(2종)으로 두가지 형태로 판매해 향후 환급금을 통해서 생활자

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주부들의 집안 청소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클린홈 할인서비스'도 도입했다. 부가서비스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홈클리닝 10% 할인, 오존 살균 클리닝 30% 할인, 포장이사 10~20% 할인 혜택을 주며 스페셜형은 3대 테마 클리닝(주방, 욕실, 침실) 40% 할인, 아내행복클리닝(주방, 냉장고, 침대 등) 30%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상해 중환자 입원일당, 화재별급, 상수도 누수손해 담보를 개발했으며, 월 3~4천원의 추가 보험료만으로도



부모님댁의 화재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15년형이 있으며, 납입주기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이 있다. 보험료는 대표플랜 기준으로 3만원~6만원 수준이며, 이 금액으로 부가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 H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퍼펙트패키지

101개 패키지...초회보험료 최고 10.5% 할인

현대해상은 다양한 위험 보장들을 패키지로 묶어 쉽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하이라이프퍼펙트패키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윈스탑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보장을 패키지로 묶어 총 101개의 위험보장을 30개의 패키지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보험을 잘 모르는 고객도 쉽고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상해·질병사망보험, 화재보험 등 1단계 패키지만으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해 최저 1만원대의 적은 보험료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합적 보장을 원할 경우 10~20만원대의 종합형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남상훈(운전자) 총 5개의 패키지 중 선택 패키지 20개 등 총 30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



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상해·질병사망보험, 화재보험 등 1단계 패키지만으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해 최저 1만원대의 적은 보험료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합적 보장을 원할 경우 10~20만원대의 종합형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남상훈(운전자) 총 5개의 패키지 중 선택 패키지 20개 등 총 30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

###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김스치로비·부상위로금 등 담보 추가 가능

동부화재는 하나의 보험으로 최고 수준의 통합·가족·평생보장이 가능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은 상해, 질병, 건강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는 운전 중 손해, 배상책임, 재물손해 및 자동차보험까지 고

급의 모든 위험을 통합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 가족전체(최대6명)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출산, 주택 및 자동차 구입 등 가족 구성원별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담보를 추가가입,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과 보험료 수준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컨버전스보험은 '신장기간병진단비, 김스치로비, 자동차부상위로금 등



의 담보를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보험기간을 확대하여 출생 시점부터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수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운영특약을 운영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조건부약으로 지금까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병력보유자나 기왕증이 있는 고객들도 보험에 들 수 있다.



### LIG웰빙보험

실손 의료비 100세까지 보장...중도인출도 가능

LIG손해보험의 'LIG웰빙보험'은 일상생활 중 상해와 각종 질병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이고 동시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들의 각 담보를 하나로 묶은 통합보험상품이다.

상해와 질병 관련 담보만도 50여개에 화재, 배상책임, 운전자비용 관련 담보까지 합치면 무려 65개에 달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뚫틈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실

손형100세 보장 담보를 적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춘 상품이다.

한번 가입하면 100세까지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실비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암진단비와 암수술비, 뇌졸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등 노년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치명적 질병(CI)에 대한 보장도 두루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보험상품 가입으로 온가족이 함께 풍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매력이다.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 피보험자로 확대할 수 있어 3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 가족 구성원 각자에 대해 개별적인 특약 구성이 가능하고 보험기간 도중에 특약 구성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



### 무배당 웰스라이프보험

여행·군입대등 특정 라이프 사이클까지 담보

메리츠화재 '무배당 웰스라이프보험'은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높아지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해, 질병, 화재, 배상책임, 비용, 의료비 등과 자동차보험은 물론 일반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특히 국내의 여행이나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중의 위험을 추가로 담보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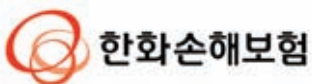
이로써 특정 시기의 고객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도 완벽한 리스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웰스라이프보험은 운영종목을 통합하여 생활속 상해위험이나 질병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자동차보험 및 국내의 여행보험이나 군 복무중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모두 한 증권으로 보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웰스라이프보험은 장기보험 60여종과 자동차보험 외에 추가로 일반보험 3종의 보장내용이 있다. 따라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담보와 보험료를 보험기간 내에 다양하게 선택, 조정할 수 있다.



### 통(通)하나로통합보험

187개 담보 보장...이혼하면 계약 분리도 가능

한화손해보험 '통(通)하나로통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등 온 가족의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과 상해·질병·운전자·재물·배상책임 등 총 187개 담보로 구성된 이 상품은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맞춰 자유롭게 필요한 보장사항과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또 자녀의 분가,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특히 한화 '한가족할인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2인 이상에 월납보험료 25만원 이상일 경우 영납보험료의 1.0%, 피보험자 3인 이상에 월납보험료 40만원 이상일 경우 영납보험료의 2%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이 상품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기본보험료를 해당일에 납입



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 대체특약을 통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장보험료를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행복드림 보험

증권 하나로 배우자와 자녀 100세까지 책임

롯데손해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배우자와 자녀 모두 100세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합보험 '롯데 행복드림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 행복드림 보험'은 날로 증가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고

이와 함께 5대 골절(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도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롯데 행복드림 보험'은 가족 동반 가입시 최대 3%, 질병사망보험금 고액(1억 5000만원)가입시 최대 3%의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주며, 중복으로 최대 8%까지 할인 가능하다. 아울러 갱신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할



수 있어 다양한 보험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른한살  
노후관리의 '노'자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정말 치밀한 천사다  
맘에 든다

**\*생명보험사 최초주식상장**

수호천사    고객상담전화  
**동양생명 1577-1004**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 두산그룹편 |

#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구자

연강 박두병 <제 11화 동양맥주를 인수하다> 글·만화 유영수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안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강 박두병 회장이 자주 인용한 헤르만 헤세의 말)

**11. 동양맥주를 인수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침했다. 그해 12월, 박승직이 타계한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약관의 나이에 상업에 입문해 인화와 근면으로 대성한 박승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만다.



강대국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손을 뗄 명분을 찾을 거야.

따라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곧 휴전이 성립될 거라구.



문제는 공장의 불허가 아닐세.

그럼 뭔가요?

불허 이후에 폐허로 변한 공장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누가 먼저 복구하고 누가 먼저 생산하느냐가 맥주 사업의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구!



1951년 8월, 전사의 임시 수도인 부산

정부는 전쟁으로 보류되었던 정부 귀속관리업체의 민간 불허를 공고했다.

게시판  
·공고·  
정부귀속 관리업체 민간 불허 박진



드디어 동양맥주 인수의 기회가 왔다!

인수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아?

전쟁으로 폐허가 되던 공장을 막대한 돈을 주고 인수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두병은 앞으로 두고두고 동양맥주의 라이벌이 될 조선맥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암, 조선맥주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복구해서 더 빨리 생산해야 돼!



1952년 3월, 동양맥주는 단독 입찰자인 박두병에게 낙찰되었다.

이제 됐다, 됐다!

재침국 사이소.

관재청



그길로 영등포공장으로 올라가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공장은 불에 타고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타다 남은 기계들이 잔해에 묻힌채로 방치된 참혹한 상황이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또 언제 다시 전쟁이 역전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라면 차라리 이곳 부산에다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임세로부터 해방도, 조국의 분단도 모두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네.



이제 이 전쟁의 양상도 강대국들과 유엔의 의지대로 자자우지 될 것인데.

지금껏 보아는 바로는 약소민족인 우리의 의사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렇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틀 내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꼭 복구하고 말테다.

박두병은 갖더미로 변해버린 공장의 모퉁을 보며 복구의 의지를 다졌다.



1952년 11월부터 시작한 복구공사는 전사원이 일처단결하여 노력한 끝에 1953년 6월, 드디어 생산작업을 개시하여 휴전 성립 10여 일 만인 8월 9일, 첫 맥주 생산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복구된 1호 제품 라인(전장이 없어 기계위에 전력이 쳐 있음)

##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투데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이투데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 만도의 재도약...2013년 세계 50위권 진입 목표

## IT+자동차 결합 통해 매년 20% 성장...10년만에 증시 재상장



변정수 대표

자동차부품 전문 업체인 만도가 10년 만에 증시로 돌아온다. 만도는 지난 외환 위기때 한라그룹이 부도난 후 2000년 2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지난 2008년 3월 한라그룹에 재편입됐고 10년여 만에 재상장을 준비 중이다.

변정수 만도 사장은 "외국자본이 만도를 가져간 후 단기수익에만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고강도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영업전선에 나서는 토탈마케팅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라그룹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8년 3월 만도를 다시 되찾았다. 만도는 한국에서 단 두 개뿐인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하나로 미국 Automotive News가 선정한 OEM 납품액 73위의 글로벌 업체다.

또한 제동장치 시장점유율 40%, 조향장치 시장점유율 54%, 현가장치 시장점유율 57%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BS브레이크와 같은 재래적인 제품에서부터 Smart Parking Assist System과 같은 첨단전자부품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기술료 미지급으로 원가경쟁력이 높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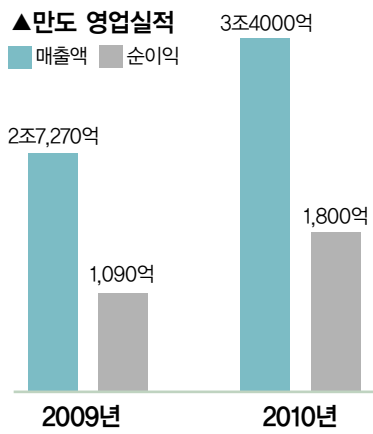
실제로 만도는 2005년 200%에 달했던 부채비율이 한라그룹에 편입된 후 2008년 103.4%, 2009년 96.4%로 축소돼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을 앞섰다.

또한 만도의 지난해 총매출액 2조7270억원, 영업이익률 685억 88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3조4천억~5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전자화, 융합,

▲만도 상장일정

5월 4·6일	수요 예측
5월 11·12일	공모 청약
공모주식수	600만주
공모 예정가	7만5천~9만원
공모금액	최대 5400억원
상장	5월19일



의 전자화에 따라 모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만도는 모터를 구동시키는 Actuator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량 정보를 기록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에 사용되는 블랙박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이르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변정수 만도 사장은 "향후 자동차와 스마트폰, 텔레매틱스와의 연결은 확실히 가야하는 방향"이라며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이 관건으로 여러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ABS(Anti-lock Brake System: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등 핵심 자동차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쌓은 품질·R&D·생산인프라 경쟁력과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토대 위에서 수익성이 높은 ABS 및 ESC를 개발해 현대, 기아차 등 기존 고객에 대한 점유율 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유럽, 일본 등 해외업체에서의 수주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글로벌 거점에 위치한 우량 자회사들도 비전 달성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지난해 약 6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 자회사들이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와 미국 자회사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도는 이들 국가 외에 현지 생산법인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진출 및 적극적 마케팅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신흥시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남미지역 공략을 위해 브라질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점 체제로 운영 중인 유럽과 일본 시장도 강화한다.

5월로 예정된 한-EU FTA 본 서명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해 유럽 공략의 점진적 진척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약 6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 자회사들이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와 미국 자회사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다.

만도 관계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법인의 경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유럽도 올해 공격적 마케팅과 한-EU FTA 체결에 따라 BMW, 폭스바겐, 벤츠 등 메이저 업체 공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만도는 오는 5월4일, 6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공모가를 확정할 후 11일, 12일 청약 을 받아 1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주식수는 600만주(신주모집과 구조매출 포함), 공모예정가는 7만5천원~9만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최대 5400억원이다.

오희나 기자 hnoh@

### 고강도 원가절감·토탈마케팅 도입 해외시장 개척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

변 사장은 또 "향후 R&D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2013년 세계 50위내 자동차부품업체로 도약할 것"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만도는 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이후 전신 현대양행의 사명을 만도기계로 바꾸고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모기업 한라그룹은 1997년 세계 12위까지 성장했다.

만도는 외환위기 당시 모기업 한라그룹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JP Morgan계열 사모펀드인 선세이지(Sunsage S.V.)에게 매각됐다.

그리고 안전이다.

만도는 이러한 자동차의 트렌드 및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발맞춰 ADAS(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전자부품, 블랙박스를 신규사업부문으로 설정해 기술개발 및 양산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DAS는 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각종 전자장치를 이용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제동, 조향, 현가장치와 연계되기 때문에 만도로서는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부품 사업의 경우 자동차

의 전자화에 따라 모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만도는 모터를 구동시키는 Actuator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량 정보를 기록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에 사용되는 블랙박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이르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변정수 만도 사장은 "향후 자동차와 스마트폰, 텔레매틱스와의 연결은 확실히 가야하는 방향"이라며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이 관건으로 여러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만도는 한라그룹에 편입된 이후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인 사시시스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수익성 높은 차세대 ABS 및 ESC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남미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유럽, 일본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 애널리스트가 본 만도

고태봉 IBK투자증권 연구원

### 車부품주 인식 바뀐 글로벌 플레이어



만도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현대자동차의 최대 핵심 부품사의 위상을 누려왔다. 당시는 지금의 한라공조를 비롯해 Winia, 탑체 등으로 알려진 공조사업부, 사시사업부, 모터사업부 등을 소유했으나, IMF 이후 한라그룹의 해체로 각각 다른 주인을 맞이해야 했다. 이번에 상장되는 만도는 사시사업부로부터 조향, 제동, 현가장치를 생산하며, IMF 이후 SunSage Capital (JP모건과 UBS캐피탈 합작회사)에 속해있다가 최근 한라건설이 이들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다시 주주의 위상을 회복한 것이다. 만도(구 만도기계)가 분리매각 이후 다시 상장의 기회를 맞이했다.

만도의 경쟁력은 (1)세계 Auto parts 73위의 대형사로 연결매출 규모가 3조를 상회하고 (2)현대, 기아차의 사시계통 핵심부품의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3)현대차와 타OE 비중이 60:40 수준으로 납품선이 다변화 되어 있으며 (4)ABS, ESC, EPB, MDPS, Smart Cruise Control, Smart parking assist system 등 현·차세대 전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5)미국·중국·인도 등 해외법인의 높은 역량을 들 수 있다.

특히 성장요인으로는 1)한라그룹의 경영권 확보 이후 현대차량 납품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2)타OE, 즉 GM, PSA, 장안기차, 치루기차 등 여러 업체로 납품규모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3)차세대 전자부품의 장착률 증가시 양질의 이익성장이 가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만도의 상장으로 국내 부품업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만도의 행보와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 부여 정도가 타 부품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품업체의 PER은 4~5배 수준에 KOSPI 평균 PER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만도 상장후 가격은 현대모비스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대형부품업체의 부재로 대형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제한적이었으나, 10년 상반기 만도, 하반기 기아, 11년 현대파워텍 등 연이은 대형부품주 상장으로 부품업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생길 전망이다.

또한 11년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으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밸류에이션의 Tool 역시 PER 일반도에서 연결기준 EV/EBITDA로 이동될 전망이다. 이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의 자격을 갖춘 만도의 상장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런 친구 있으세요?

- 성공을 위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하는 비즈니스 세계.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 예기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는 재해와 자연재난처럼
- 성공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 11위의 World Class 재보험회사 코리안리가 여러분의 사업을 굳건히 지켜드리는 성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1위 재보험 전문회사 - 코리안리



재보험은 빌딩, 공장, 항공, 선박, 인공위성, 배상책임 등의 거대한 보험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 종로 '강중희 상점' 에서 30개국 수출 글로벌기업 '우뚛'

## 동아제약

### 국내 제약사 처음으로 올 매출 1兆 달성 예상



1932년 서울 종로구에서 창업주의 이름을 딴 강중희 상점으로 시작해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온 동아제약은 1967년 국내 1위 제약사에 오른 뒤 업계 선도해오며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기준 80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업계 2위인 녹십자(6432억원)와 1000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장세로 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1조원 매출 고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6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회사의 대표품목이자 해외 30여개국이 넘는 곳에 수출되는 전 세계인의 건강드링크로 자리잡았다.

동아제약의 로고는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이다. 1982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생명 존중의 제약회사의 이미지를 담아 제작됐다.

이에 맞게 동아제약은 제약업계에서 위기에 강한 회사로 통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당시 매출액의 절

반을 차지했던 박카스 비중도 줄었다.

또 제약사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성공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와 천연물신약 '스티렌'으로 체질 개선산업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 자체 기술 개발 스티렌·자이데나 해외 진출 신약·자가 개발 전문의약품 비중 확대 계획

동아제약은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2005년부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제약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활발하게 해외진출에 앞장서왔다.

특히 동아제약은 연구중인 예비 신약(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현재 진입이 가능한 중국 시장에 맞는 신약 개발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다는 이른바 '소(小) 글로벌화 전략'을 기반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일본, 중국의 제약회사와 제휴하는 '한중일 삼각 R&D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 매출을 전체 매출의 40%까지 확대하고 다국적 제약사와의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규모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해외사업부문을 계속 강화해 매년 인력을 늘리

고 있고 어학실력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해외진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에 동남아 지역에 인삼제품을 첫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원료의약품, 생물학제제를 수출, 1986년에 인도네시아에 '박카스'를 수출했다.

1987년에 수출액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1999년에는 자체기술로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이 가시화되며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바이오의약품인 '에포론', '듀코

스팀', '인터페론알파', '그로트로핀' 등은 현재 브라질 칠레 페루 등의 중남미지역, 인도 파키스탄 등의 서남아시아 지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동아제약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신약 '스티렌'과 '자이데나'는 국내 제약사 해외진출의 새 지평을 열었다. 2006년 자이데나가 중동 지역에 처음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남미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누적수출액 3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신약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계약이다.

또한 천연물신약 스티렌을 시작으로 항암제 '에피루비신', 불임치료제 '고나도핀' 등이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중국 내 수출계약액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지역에 바이오의약품 및 항암제 등을 약 8800만달러 규모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선진유럽시장 진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시장성 부족과 국내용이라는 비판 속에서 해외 진출은 거의 대부분 기



수출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이데나', '스티렌'과 전문의약품 '고나도핀' 등이 완제의약품으로 다국적제약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의 장을 열었다.

천연물신약 '스티렌'은 필리핀과 수출계약을 맺고 2008년 3월 필리핀 의사들을 초청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입증된 효능·효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티렌은 그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수출 규모가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 3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박카스는 국가별로 맛과 제품포장을 차별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세계인의 박카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동아제약은 신약 및 자가개발 전문의약품 비중을 높여 세계시장 진출을 겨냥한 국제화 전략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며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제약이 속한 동아쏘시오그룹은 제약, 식음료, 물류, 의약품, 기계부품, 정보통신, 병유리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계열사로는 동아제약, 동아팜텍, DAC, 동아오츠카, 수석무역, 소주중앙음료유 한회사 등이 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50년간 판매한 박카스 '지구 49바퀴'

### 서민 피로 회복시켜 주는 국민드링크로 자리잡아

국내 의약계엔 '박카스 신화(神話)'라는 말이 있다. 반세기 동안 한결같이 서민의 피로 회복제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1961년 정제 형태로 처음 출시된 동아제약 '박카스'는 1963년 현재와 같은 드링크 형태로 바뀐 뒤 2008년까지 약 162억9000만병을 팔았다. 지금까지 팔린 병의 길이를 더하면 지구 49바퀴를 돌고도 남는다.

'박카스'란 제품명은 강신호 회장이 '간장 보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하던 중 독일 출장에서 본 함부르크 시청 앞의 술과 추수의 신(神) 박카스를 떠올리게 되면서 유래하게 됐다. 당시 회사명이나 성분명을 이용해 제품명을 정하는 것이 고작이던 시대에 의약품의 이름에 신화 속 신의 이름을 붙이는 과격적인 상품명으로 박카스는 탄생한 것이다.

자양강장드링크 제품의 후발주자였던 박카스 '디'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사운을 건 대량생산, 대량광고, 대량판매 전략, 이른바 3M(Mass) 전략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했다.

툰니바퀴 모양의 심벌 도입, 캐치프레이즈의 활용,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적절한 매체 믹스, 캠페인 광고, 증인식 광고, 스폰서형 광고 등 다양한 박카스의 광고 전술은 발매 1년만에 드링크 시장 1위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국내 의약품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박카스는 한국 광고사의 효시가 되고 있다.

또 도매상을 거쳐 소매약국에 출하되는 당시의 의약품 유통방식을 탈피, 과감하게 소매 직거래를 빼다로 하는 특약점 제도를 구축해 박카스를 유통시켰으며 이러한 유통 전략은 현재 박카스 루트세일이라는 동아제

약만의 독특한 유통시스템의 기반이 됐다.

박카스는 이후 대중광고 금지, 사카린 과용, 식품드링크의 시장장식 등 몇 차례의 시련을 겪었지만 1위 자리를 놓치지 지켜냈다. 1990년대 초 '박카스 디'에서 '박카스 에프'로 변경됐고 2005년 3월 기존의 '박카스 에프'에서 타우린을 두배(2000mg)로 늘리며 14년만에 '박카스D'로 업그레이드됐다. 2005년 8월8일 박카스는 여성과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 카페인 성분을 제외한 '박카스 디카페'를 발표했다.

타우린 2000mg을 비롯해 각종 생체 활력성분이 적절하게 배합된 황금처방 피로회복제 '박카스'는 발매 당시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국민드링크'라는 애칭을 얻으며 반세기 동안 소비자 곁에서 한결 같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세계가 부러워 할 국산신약 만든다

### 올해 첨단연구소 오픈·제4공장 착공



동아제약은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다. 동아제약은 1988년 국내 최초로 연간경 2000명 규모의 KGLP 연구소를 준공해 전 임상단계까지 신약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췄다.

그 결과, 1988년 국내 최초로 AIDS 진단시약 개발, 1990년 국산 신약후보 1호 항암제 DA-125 후보물질 도출, 1993년 2세대 AIDS I·II 동시 진단시약 개발 및 국내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성항종괴 개발, 1994년 AIDS·C형간염 동시 진단시약 개발에 성공했다.

9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 의약품인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에 성과를 나타냈다. 1994년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한 유전공학치료제 '인터페론알파', 1997년 국내 최초 항결핵제 '사이클로세린'의 원료의약품, 1999년 신성 빈혈 치료제 '에포론',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류코스팀' 및 2세대 인성항종괴론 '그로트로핀 II' 등을 개발했다.

2000년대에 들어 자가개발 신약에 성공하며 해외경쟁력을 갖춘 전문치료제 개발에 매진해왔다. 2002년에 천연물신약 '스티렌'을, 2005년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성공적으로 발

매하며 시장에서 국산신약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2007년 불임치료제 '고나도핀'을 개발하며 바이오의약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이데나'는 현재 미국의 워너 칠코트(Warner Chilcott)사와 미국FDA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또 동아제약이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수출한 수퍼항생제 'DA-7218'은 순조롭게 임상 2상을 완료하며 상품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동아제약은 스티렌에 이은 제2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연구해왔다. 기능성 위장질환 치료용 신약후보물질인 'DA-9701'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전임상 연구를 거쳐 현재 임상 2상까지 마쳤다. 2010년 상반기에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2011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첨단연구소를 개소하고 반월과 달성, 천안공장에 이은 제4공장을 신축할 예정으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도훈 기자 sogood@

www.hwgeneralins.com

이제,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마음놓고 행복할 시간입니다

행복

지금, 2만3천명의 행복 전문가가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 정의선 부회장 “품질이 더 중요”

### ‘오토차이나2010’ 기자회견서 밝혀...中 제3공장 계속 검토중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23일 “중국에서 생산량만 맞추려면 올해 목표 이상의 실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토차이나 2010(베이징 모터쇼)’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국 시장의 실적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 시장 판매 목표를 현지 공장의 최대 생산규모인 67만대 수준으로 잡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생산량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지 않겠다고 품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3공장 건설 계획에 대

해서는 “계속 스테디(검토) 중”이라며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베이징모터쇼가 파리,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모터쇼와 함께 세계 4대 모터쇼가 돼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매년 신차도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이 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의 중국형 베르나 신차 발표회에서 한 공식 연설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의 하나”라며 “중국 고객

들의 취향과 수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업체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많이 달라 아직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BYD(비야디)의 경우 경쟁력이 있고 최근 투자를 많이 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전략과 관련해 “다른 업체들을 의식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우리 페이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질과 디자인을 고급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부회장이 연설하는 시간에 현대차 전시장으로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현대차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그는 10여 분간의 연설을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진행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 부회장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브랜드에 이전과 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과 열정을 담고 있다”며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준 것이 현대가 정말 주목할 만한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이석채 회장 “스마트폰은 IT 혁명”

### KITA 조찬 강연...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스마트폰은 TV이후에 나온 디바이스(기기) 중 가장 비즈니스 완성도가 높아 산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겠다.”

KT 이석채(사진) 회장은 20일 열린 한국부여협회(KITA) 조찬 회에서 ‘스마트폰과 IT혁명’이라는 초청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IT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휴대폰의 컴퓨터화, 컴퓨터의 휴대폰

화를 고민해 왔다”며 “그러나 삼성,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같은 고민을 할 때 블랙베리와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시장을 뒤엎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태동한 스마트폰은 기업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의 기회비용과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에서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스마트폰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도 무선통신을 위시한 각종 망정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진 것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외산폰 진입을 막고 있던 위피제도 폐지와 KT 합병승인, 아이폰 도입등이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긴 원동력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내 통신 업체는 지나치게 내수에 치중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통신 정책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법에는 등급

심사가 있는데 이에 따라 애플, 구글등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게임 서비스를 차단해 국내 게임 개발사는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스마트폰은 아이패드, 이북단말기등 앞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도 장기적인 투자가 소요되는 OS개발보다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이폰이 어떻다는 평가보다는 이 제품에 왜 관심을 보이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스마트폰은 생활의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득 기자 lob13@

# 이중근 부영 회장 라오스 초등학교 기증



이중근 부영 회장이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건립해 기증했다.

22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일 라오스 나싸이퐁 후와이 남연 마을 후와이 남연 초등학교에서 부아순 부파반 총리와 체 우영 숭분간 수상실 장관, 이건태

주 라오스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준공과 기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기증된 300개 학교는 총 7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고 한 학교 당 15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5개와 교무실 1개, 화장실 2개를 비롯해 책상, 칠판, 탁자, 의자 등의 기본 교육시설을 갖췄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이중근 회장은 “오늘 건립 기증된 학교

교사가 품 많은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배움과 학습의 터전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과 라오스 양국 간 친밀한 우호협력과 문화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라오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학교 교사 신축 후원과 디지털 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기증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임창열 고문 영입 알앤엘바이오



알앤엘바이오 오는 국제적 금융전문가인 임창열(66) 전 경제부총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문역 수임으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6년 알앤엘바이오 명예회장 역임에 이어 다시 알앤엘바이오를 적극 지원하게 됐다.

알앤엘바이오 오는 국제적 금융전문가인 임창열(66) 전 경제부총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문역 수임으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6년 알앤엘바이오 명예회장 역임에 이어 다시 알앤엘바이오를 적극 지원하게 됐다.

# 남용 부회장 “녹색성장 글로벌 기업에 기회”

### ‘B4E 글로벌 서밋 2010’ 특별연설



“녹색성장은 글로벌 기업에게도 큰 기회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 환경보호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리더십과 협력이 중요하다.”

지구촌 환경보호를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인 B4E 글로벌 서밋 2010 행사 이틀째인 22일 남용 부회장은 서울 삼성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10분 동안 연설했다.

남 부회장은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이 한 달 평균 100달러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비나 솔루션을 기업들이 만들게 된다면 전기사용량은 적어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또 “호텔의 경우 친환경 설계로 짓게 되면 전력소비나 탄소배출량을 40~50%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은 투자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LG전자도 이러한 사업 모델에 관심이 크다고 남 부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녹색빌딩을 가능케 해주는 에너지관리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다”며 “5년 내에 이 솔루션들은 주요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서로 협력하면 사업규모나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사회가 힘을 모으면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낙관적이라고 남 부회장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이 있게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 부회장은 “많은 고객들이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업에게도 큰 기회이다. 비전을 만들고 기회를 찾아 나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B4E 글로벌 서밋 2010’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이다. LG전자는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사 최고 지위자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원한다.

송영록 기자 syr@

# 최방길 대표 ‘좋은아침 희망 펀드’ 가입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의 최방길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한BNPP 좋은아침 희망 펀드”에 가입했다.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펀드”는 국내 주식형 성장 펀드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와 최근 1년 수익률 순위가 각각 상위 6%와 4%에 속하는 뛰어난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A Class 기준)

최방길 대표이사는 “국가 신용도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망은 밝다”며 “장기적 투자자가 가장 효과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미래에셋 ‘글로벌리더 대장정’ 4천명 돌파

### 올해 2500명 등 5년 동안 6000여명에 기회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부터 시작한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에 참여한 어린이가 지난 22일 출발한 7기 150명을 포함, 총 4000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은 3박 4일간 21세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상해를 방문해 경제발전현황을 직접 확

실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기업 탐방, 중국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현지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가입자중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올 해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으로도 확대해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희기자 chaosul@

Merry Meritz, Smart Meritz!

MERITZ 메리츠화재



이 연방은 88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 온 메리츠화재와 고객을 상징하는 것으로, 삶의 근간인 동반자로서 서로의 믿음에 기대고 의지하며, 100년이라는 세월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객컨택센터 1566-7711 | www.meritzfire.com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0-1749호 (2010.04.13~2011.04.12)

# 그게 돼요?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변하는 게  
갖고 있던 펀드로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수익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게  
실시간으로 운용결과를 조회하는 게  
그게 진짜 돼요?

## 아임유 고객 성원 감사 이벤트

- 아나** 아임유 가입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고급 화장품세트 및 골프공세트 등 사은품 증정
  - 들** 아임유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가족여행권 및 외식상품권 증정
    - ▶1등(1명) 동남아 가족여행권 (4인기준) ▶2등(3명) 일본 부부동반여행권 (2인기준)
    - ▶3등(10명) 제주 부부동반여행권 (2인기준) ▶행운상(100명) 가족외식상품권(5만원)
- \* 1인 중복당첨지급불가,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방송인 박지윤

## 된다는 생각이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당신 마음처럼 함께 크는 신개념 자산관리 아임유

- 1 첨단과학 자산운용 기법**  
· 자산 배분 전략 수립시 자체 증시분석 모델인 KIS 지표를 활용하여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 2 펀드로도 가입 가능한 신개념 상품**  
· 타 금융기관의 펀드, 기존의 펀드, 주식 등으로도 대체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
- 3 고객과 회사와의 이해관계 일치**  
· 자산규모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 체계로 고객의 자산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4 책임이 남다른 사후관리**  
· 실시간 자산운용현황 조회 및 매월말 시장 분석 리포트와 자산운용결과 리포트 수신 가능

**SAMSUNG 삼성생명 상장**

**공모 일반청약 실시 [청약일: 5.3(월) ~ 5.4(화)]**

\* 온라인 청약시 수수료 무료 / ARS 1544-5000 \* 4/30(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필요

함께 가는 금융 친구

# I'M YOU

**I'M YOU** 고객센터 1544-5000 www.truefriend.com  
\*당사는 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해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계약권유문서, 계약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개인별로 운용권이 되므로 동일시기에 가입한 계약라고 하더라도 조기상환 또는 만기시 계약금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투자유형에 따라 연1.8%~2.5% 분기별 후취됩니다. \*본 광고는 청약 권유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예비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